지식경제부 **보도자료**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www.mke.go.kr

2011년 9월 8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강명수 정보통신정책과장(02-2110-4801), 박중수 사무관(4796)

8월 IT수출 130.6억불로 6개월 연속 130억불帶 수출 지속

- 메모리반도체, 디스플레이 단가 하락으로 2개월 연속 소폭 감소
- 휴대폰, TV, 시스템반도체 등 대부분 IT제품 수출은 견조한 증가세

지식경제부는 8월 IT수출이 130.6억 달러로 6개월 연속 '130억 달러帶 수출'을 지속했고 무역수지도 59.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IT산업 및 전체 산업 수출입 동향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 분		2011년				2010년			
		8월P		1~8월P		8월		1~8월	
수 출	전체산업	463.8	(27.1)	3,707.2	(24.3)	364.8	(26.0)	2,982.3	(32.2)
	IT산업	**130.6**	**(△2.4)**	**1,035.1**	**(3.8)**	**133.9**	**(26.4)**	**997.5**	**(34.7)**
수 입	전체산업	455.6	(29.2)	3,478.8	(26.7)	352.7	(28.7)	2,744.8	(36.9)
	IT산업	**71.0**	**(11.2)**	**543.6**	**(12.7)**	**63.8**	**(16.6)**	**482.3**	**(22.6)**
수 지	전체산업	8.2		228.4		12.1		237.4	
	IT산업	**59.7**		**491.6**		**70.1**		**515.2**	

품목별로는 메모리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의 단가 하락으로 전년 동월대비 2.4% 감소하여 2개월 연속 소폭 감소했지만, 휴대폰은 국내업체의 스마트폰 경쟁력이 대폭 제고되어 두 자릿수 수출 증가(20.7억 달러, 10.2%↑)를 기록하였다. 또한, '11년 2분기 우리나라 휴대폰 산업은 갤럭시S, 옵티머스 등 전략 스마트폰 출시 이후 불과 1년 만에 스마트폰 세계 1위, 휴대폰 출하량, 매출액 세계 1위에 등극(Strategy Analytics, 2011.8)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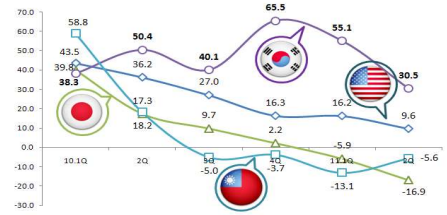
※ 단가 추이 ('10.8 → '11.8, $) : (D램) 2.4 → 0.57, (디스플레이 패널(TV용 LCD)) 339 → 251

※ 세계시장점유율('11.2Q, %) : (스마트폰) 23.1, 1위, (휴대폰 출하량 기준) 28.3, 1위, (휴대폰 매출액기준) 24.0,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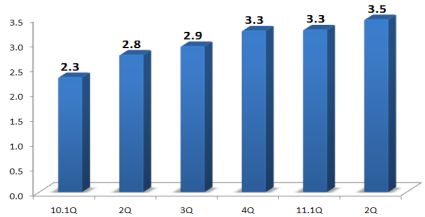
TV 수출은 3D TV, 스마트 TV 등 프리미엄 제품과 TV부분품 수출 호조로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7.7억 달러, 10.2%↑)하였고, 태블릿PC는 글로벌 업체의 특허 견제에도 불구하고 2.0억 달러 수출로 전월대비 17.9% 증가하였다.

융합 핵심부품인 시스템반도체는 모바일AP, DDI 등의 수출확대와 파운드리 물량 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월대비 22.1% 증가한 17.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대만, 일본 등 경쟁국가의 경우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나라 시스템반도체 산업은 6분기 연속 30%가 넘는 매출 증가를 기록하며 세계시장점유율 등 경쟁력을 확대하고 있다.

시스템반도체 매출액 성장률 (%)



우리나라의 시스템반도체 시장점유율(%)



자료 : iSuppli, 2011.8. 주 : 시스템반도체(Microcomponent IC, Logic IC, Analog IC 등)

IT 주요 품목별 수출 추이 비교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11.1	2	3	4	5	6	7	8
메모리+ 디스플레이 패널	47.4	41.3	50.4	48.5	49.1	47.7	43.3	42.6
증감률	(7.2)	(△3.1)	(△1.6)	(△8.4)	(△10.9)	(△11.8)	(△25.6)	(△28.8)
비중	(37.0)	(37.0)	(37.4)	(36.5)	(36.8)	(36.0)	(33.0)	(32.6)
패널	25.6	22.6	27.0	26.3	27.0	26.4	25.2	25.2
증감률	(4.0)	(△3.3)	(△4.9)	(△7.3)	(△7.0)	(△8.3)	(△21.2)	(△21.2)
메모리반도체	21.8	18.8	23.4	22.2	22.1	21.3	18.2	17.5
증감률	(11.3)	(△2.8)	(2.6)	(△9.6)	(△15.3)	(△15.8)	(△31.1)	(△37.4)
주요품목(메모리, 패널제외)	80.8	70.3	84.4	84.4	84.4	84.6	87.8	88.0
증감률	(22.3)	(9.8)	(11.1)	(15.6)	(16.1)	(11.1)	(13.7)	(18.9)
휴대폰	23.8	19.8	21.7	23.2	24.4	22.2	21.8	20.7
증감률	(11.9)	(5.6)	(5.8)	(31.7)	(38.9)	(17.9)	(15.1)	(10.2)
시스템반도체	13.8	12.2	15.1	13.7	14.3	15.2	15.9	17.4
증감률	(36.9)	(16.4)	(22.2)	(11.5)	(10.8)	(14.8)	(12.8)	(22.1)
TV	6.4	5.9	7.1	6.3	6.0	6.4	8.5	7.7
증감률	(18.9)	(16.0)	(11.1)	(△8.6)	(△8.4)	(△2.0)	(22.0)	(10.2)
2차전지	3.2	2.8	3.8	3.8	4.1	4.4	4.0	4.0
증감률	(26.2)	(7.0)	(13.6)	(22.7)	(34.2)	(27.3)	(28.9)	(37.2)
컴퓨터 및 주변기기	5.7	4.9	6.4	5.9	5.5	6.3	6.7	7.2
증감률	(△6.3)	(△18.2)	(△6.7)	(△12.3)	(△11.8)	(△3.1)	(15.8)	(35.8)
IT 전체	128.2	111.6	134.8	132.9	133.5	132.3	131.1	130.6
증감률	(16.3)	(4.7)	(6.0)	(5.5)	(4.5)	(1.6)	(△3.2)	(△2.4)

국가별로는 미국(11.7억 달러, △20.4%), EU(11.7억 달러, △31.3%), 일본(6.7억 달러, △0.8%) 등의 선진 시장 수출은 대체적으로 감소한 반면, 중국(홍콩포함, 64.5억 달러, 3.1%↑), 중남미(7.0억 달러, 5.5%↑), 중동(3.3억 달러, 17.2%↑)등 개도국 수출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중국은 사상 최대치(당초 최대치 : '11. 7월 64.4억 달러)를 다시 경신하며 우리나라 IT수출의 중국 비중은 49.4%를 기록하였다. 그 동안 중국은 부품 수출이 대부분을 이루었으나, 중국이 TV·휴대폰 등의 글로벌 소비시장으로 부상하면서,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 對중국(홍콩 포함)의 IT수출 비중(%) : ('09) 41.5 → ('10) 45.0 → ('11.1) 44.3 → (3) 46.7 → (8) 49.4

'11년 8월 IT산업 주요 국가/품목별 수출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 분	반도체		패 널		휴대폰		전 체	
전체	41.1	(△13.4)	25.2	(△21.2)	20.7	(10.2)	130.6	(△2.4)
중국(홍콩포함)	22.2	(△13.8)	18.9	(△1.9)	7.2	(59.2)	64.5	(3.1)
미국	1.8	(△47.8)	0.2	(△64.6)	4.7	(△26.4)	11.7	(△20.4)
일본	2.8	(△16.7)	0.3	(△72.5)	1.3	(153.3)	6.7	(△0.8)
EU	2.1	(△39.1)	3.1	(△52.1)	1.8	(△30.3)	11.7	(△31.3)

한편, IT수입은 전년 동월대비 11.2% 증가한 71.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네트워크 장비 수입은 최근 국내 통신사의 네트웍 장비 투자 확대로 4.0억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134% 증가하였고, 휴대폰 수입은 15.9% 증가한 3.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또한, 최대 수입 품목인 전자부품(40.7억 달러, 6.0%↑)과 컴퓨터 및 주변기기(8.0억 달러, 5.4%↑) 등도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최근 IT수출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등 주력 제품을 중심으로 다소 정체되고 있지만, D램과 디스플레이 패널의 글로벌 업황은 하반기 업계의 감산 및 후발 업체의 퇴출 가능성 등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Gartner 등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D램의 글로벌 공급과잉 해소는 3분기 이후로, 가격 회복 시기는 4분기로 전망하고 있으며, 디스플레이 패널도 3D LCD 패널, OLED 패널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하반기 회복세를 전망하고 있다.

※ D램 공급과잉률(%, Gartner) : ('10.4Q) 103→ ('11.1Q) 102→(2Q) 100.3 →(3Q) 97.8 → (4Q) 98.1

최근 업체 간 출혈 경쟁으로 D램과 LCD 패널 단가가 원가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서 수출 둔화와 수익성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대만, 일본 등 경쟁 업체는 누적적자가 심화되면서 향후 국내업체와의 세계시장점유율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IT수출은 하반기의 전통적인 IT제품 성수기 수요와 맞물리면서 1,600억 달러 대의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종전에는 '10년 1,539억 달러가 최대치).

< 붙임: 세부자료 >

< 세부자료 >

목 차

1.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6

2. 주요 국가별 수출 동향 38

3. 수입 및 수지 동향 41

4. 2011년 8월 IT산업 수출입 통계(잠정) 43

1.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1 휴대폰(부분품 포함)

1) 시장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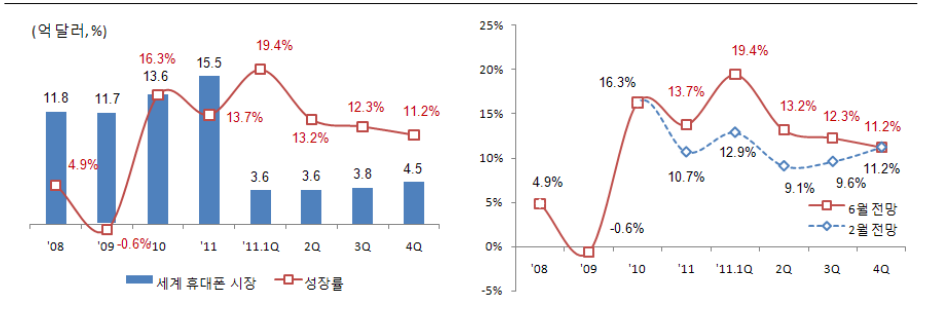
▶ '11년 세계 휴대폰 시장은 13.7%로 성장 예상

※ '11년 세계 휴대폰 시장 전망 (SA, 2011.6, 출하량 기준) : 15.5억 대, 13.7%

○ SA는 스마트폰과 저가폰 시장 성장세를 반영하여, 3분기 세계 휴대폰 시장 성장률은 기존 9.6%에서 12.3%로 상향

※ 휴대폰 시장 세부 품목별 성장률 전망(SA, 2011.4, 출하량 기준)
: (저가폰) 10.3%, (피처폰) -1.6%, (스마트폰) 45.3%

세계 휴대폰 시장 전망 | **세계 휴대폰 시장 전망 비교 (기존vs 최근)**



자료 : SA, 2011.6. 2011.2.

▶ 안드로이드 등 범용OS 비중이 확대되면서 스마트폰의 HW 성능의 차별화(LTE, HD, Quad Core 등)가 하반기 이슈로 부상할 전망

※ 안드로이드 OS 세계시장점유율('11.1Q→2Q, %, Gartner) : 36.4 → 43.4

○ 범세계적인 LTE 서비스 확대로 국내 및 글로벌 업체의 LTE 폰 출시가 예정

○ 스마트폰의 멀티태스킹, 컴퓨팅 능력에 대한 수요 확대로 Dual Core 스마트폰보다 성능이 대폭 강화된 Quad Core 신제품 출시가 예상

▶ 한편, 애플의 저가형 아이폰4 출시설 등 최근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경쟁도 점차 가속화 될 전망

○ 애플의 저가폰 출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저변 시장 확대, HW 판매를 통한 매출 성장 도모, 중국 등 신흥 시장 공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추정

○ 국내 업체의 경우 이미 연초에 중저가 스마트폰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를 통해 중국 등 신흥시장 점유율을 최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스마트폰 점유율('11.1Q→2Q, %) : (중국) 11.4→ 16.4, (중남미) 17.0 → 21.6, (러시아) 5.5 → 7.6

▶ 국내업체의 스마트폰 세계시장점유율은 안정적인 스마트폰 구현과 차별화된 제품 스펙을 바탕으로 전략 모델이 출시된 지 불과 1년 만에 세계 1위에 진입

○ '11년 2분기 휴대폰 세계시장점유율(출하량 기준)은 스마트폰 시장 입지 강화에 힘입어 28%대를 회복

○ SA의 2011년 8월 실적 자료에 따르면, 국내 휴대폰 산업은 스마트폰 경쟁력 강화를 통한 매출 확대로 사상 처음 매출기준 및 출하량 기준 휴대폰 세계 1위에 진입한 것으로 추산

'11.2분기 주요 업체별 세계 시장점유율

(단위 : 백만 대, 억 달러, %)

스마트폰		출하량	(증감률)	휴대폰 전체		출하량	(증감률)	휴대폰전체		매출액	(증감률)
1	Apple	20.3	(141.7)	1	Nokia	88.5	(−20.3)	1	Apple	128.1	(156.3)
2	삼성전자	19.2	(519.4)	2	삼성전자	74.0	(16.0)	2	삼성전자	102.4	(48.1)
3	Nokia	16.7	(−29.8)	3	LG전자	24.8	(−19.0)	3	노키아	70.8	(−16.2)
4	RIM	12.5	(11.6)	4	Apple	20.3	(141.7)	4	HTC	41.3	(125.0)
5	HTC	12.1	(132.7)	5	ZTE	19.6	(86.7)	5	RIM	36.1	(7.5)
6	LG전자	6.2	(588.9)	6	RIM	12.5	(11.6)	6	LG전자	29.5	(1.9)
국내 업체		25.4	(535.0)	국내 업체		101.1	(4.6)	국내 업체		131.9	(34.4)
세계시장점유율		**23.1**	**1위**	**세계시장점유율**		**28.3**	**1위**	**세계시장점유율**		**24.0**	**1위**
전체		110.0	(76.3)	전체		358.0	(11.9)	전체		548.8	(12.8)

자료 : SA 2011.7, 2011.8

2) 수출 여건 및 수출 증가 원인

▶ '해외 생산 후 직수출' 물량 증가는 휴대폰 수출 증가에 부정적 요인

○ '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해외 생산 비중은 최근 스마트폰의 국내 생산 확대로 둔화세에 접어들었으나,

○ 스마트폰 단가 경쟁 심화와 국내 업체의 저가 스마트폰 시장 대응 강화로 휴대폰 해외 생산 비중은 '11.2분기 이후 다시 확대 추세

※ 휴대폰 해외 생산 비중 (%) : ('08) 45 → ('09) 58.2 → ('10) 64.2→ ('11.1Q) 63.1→ (2Q) 72.2

○ 다만, 해외 생산 확대로 완제품 수출은 둔화되고 있으나, 부분품 수출은 최근 급증하고 있어 해외 생산 확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것으로 예상

※ 8월 휴대폰 품목별 수출 증감률 (%) : (휴대폰 전체) 10.2, (완제품) −17.1, (부분품) 48.3

3) 수출 동향

▶ 8월 휴대폰 수출은 국내업체의 스마트폰 경쟁력 제고와 노키아 등 경쟁업체 실적 부진으로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수출 증가세 기록

○ 피처폰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45.0% 감소했으나, 스마트폰은 3.9%, 부분품은 48.3% 증가하며 휴대폰 수출을 주도

○ 특히, 부분품 수출은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완제품을 넘어섬

▶ (지역별) 최대 수출 국가인 미국은 신규 스마트폰 발매를 앞두고 있어 전년 동월대비 26.4% 감소한 4.7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중국(홍콩포함, 7.2억 달러, 59.2%↑)은 미국을 제치고 2개월 연속 휴대폰 수출 최대 국가에 등극

○ 일본(1.3억 달러, 153.3%↑), 중남미(1.4억 달러, 44.3%↑), ASEAN(2.1억 달러, 90.6%↑) 등은 스마트폰 수출 증가로 높은 증가세 지속

휴대폰(부분품 포함)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10.8	9	10	11	12	'11.1	2	3	4	5	6	7	8
휴대폰(부분품 포함)	18.8 (△17.6)	21.1 (△16.1)	26.5 (2.9)	26.8 (8.9)	22.4 (21.7)	23.8 (11.9)	19.8 (5.6)	21.7 (5.8)	23.2 (31.7)	24.4 (38.9)	22.2 (17.9)	21.8 (15.1)	20.7 (10.2)
스마트폰	6.2 (378.1)	8.3 (560.0)	10.8 (268.1)	11.8 (240.5)	10.2 (349.2)	9.5 (454.9)	9.2 (398.6)	8.3 (262.1)	12.2 (519.3)	12.6 (325.8)	10.0 (99.4)	7.6 (41.6)	6.5 (3.9)
피처폰	4.7 (△59.6)	4.3 (△66.7)	7.0 (△45.0)	6.7 (△45.3)	5.1 (△40.2)	4.9 (△47.8)	3.9 (△57.3)	4.3 (△57.5)	3.1 (△64.1)	3.7 (△46.6)	3.5 (△49.0)	3.2 (△44.6)	2.6 (△45.0)
부분품	7.8 (△20.5)	8.5 (△22.4)	8.8 (△13.9)	8.4 (△6.5)	7.1 (△6.7)	9.4 (△7.8)	6.7 (△14.7)	9.1 (11.7)	7.8 (13.1)	8.2 (5.7)	8.6 (26.0)	10.9 (41.6)	11.6 (48.3)

2 반도체(메모리반도체, 시스템반도체)

1) 시장 환경

▶ 글로벌 경제 불안심리 확산에 따른 IT 소비심리 위축으로 반도체 시장 부진 지속

○ 미국, EU 등 선진시장의 경기침체 우려로 PC 등 전방산업의 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이것이 후방산업인 반도체 시장 회복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전통적으로 하반기는 신학기(9월), 중국 국경절(10월), 추수감사절(11월), 크리스마스(12월) 등 IT 수요가 증가하는 계절적 성수기이나 미국 경제의 더블딥 우려, 일본의 신용등급 강등, 유럽의 재정불안, 중국의 긴축정책 등이 IT 제품에 대한 소비심리를 급격하게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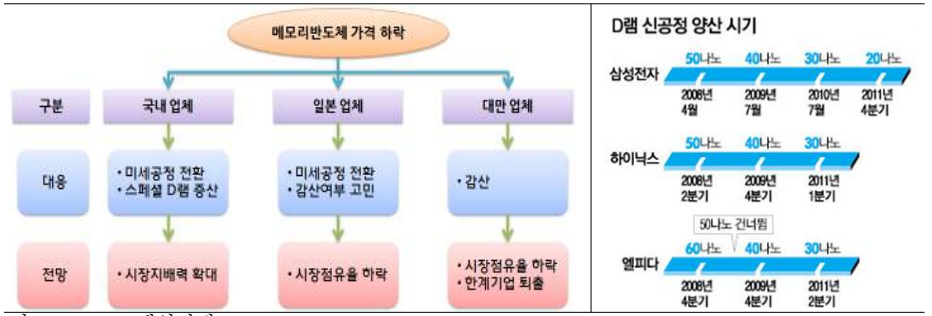
▶ 최근 메모리반도체 가격급락은 국내업체의 수익악화로 연결될 전망이나 중장기적으로 시장지배력 확대의 계기로 작용

○ 국내업체들은 미세공정(20, 30nm) 전환으로 원가경쟁력 측면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모바일D램과 서버용D램 등 스페셜 D램 비중 확대전략을 구사 중

○ 대만업체들의 경우 원가경쟁력·공정기술력, PC시장의 부진 등을 고려할 때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감산에 이은 퇴출이 예상

○ 일본의 엘피다는 미세공정 전환을 통해 가격하락에 대응할 전망이나 '10.3Q부터 지속된 영업적자로 감산이 임박한 것으로 추정

메모리반도체 가격하락에 따른 업체별 향후 전망



자료 : NIPA, 매일경제, 2010.8

▶ ‘11.2Q기준, 우리나라의 D램 시장점유율은 65.1%를 기록, 가격급락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경쟁업체에 비해 선전하며 시장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

○ 삼성전자는 41.6%의 점유율을 기록하여 전분기 대비 1.9%p 상승하였고, 하이닉스도 전분기보다 소폭(0.3%p↑) 상승한 23.4%의 점유율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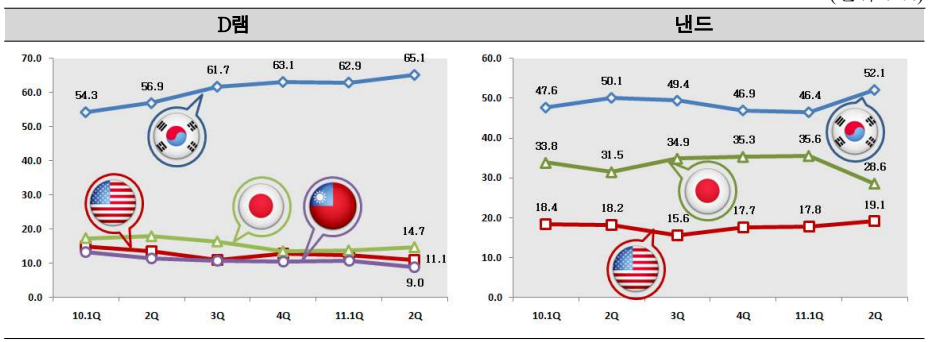
▶ 상대적으로 부진이 덜한 낸드플래시 시장점유율은 ‘10.2Q 이후 1년 만에 시장점유율 50%를 재 돌파하였으며, 일본(도시바)과의 격차도 확대

○ ‘11.2Q 낸드플래시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매출 19.7억 달러로 39.3% 점유율을 기록하였으며, 도시바(14.3억 달러, 28.6%), 하이닉스(6.4억 달러, 12.7%), 마이크론(6.0억 달러, 11.9%), 인텔(3.6억 달러, 7.2%) 등이 2~5위를 차지

- 하이닉스는 낸드플래시 공정전환을 통한 출하량 증대에 힘입어 ‘10.1Q 이후 6분기 만에 마이크론을 제치고 3위 자리에 복귀

메모리반도체 점유율 추이

(단위 : %)



자료 : iSuppli, 2011.8.

▶ 국내 반도체 산업구조가 메모리반도체 위주에서 시스템반도체 등으로 다변화

○ 시장조사기관 iSuppli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시스템반도체 매출액 증가율은 ‘09.3Q이후 8분기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 기록

○ 올해는 IT 제품 등 전방산업의 부진에 따른 반도체 시장 정체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등 국내 업체의 시스템반도체 매출은 1분기 55.1%, 2분기 30.5%의 증가하며, 미국·일본·대만 등 주요 경쟁국보다 선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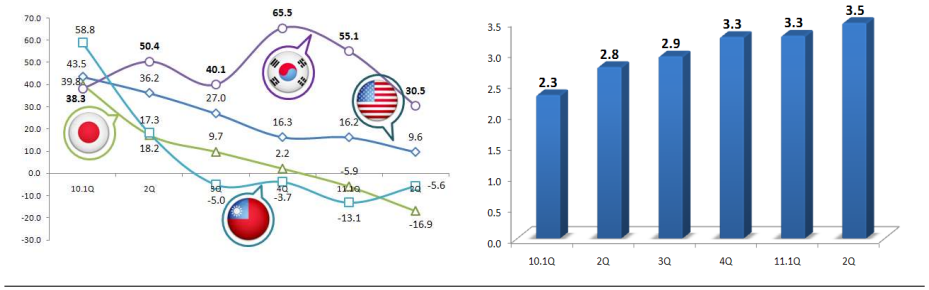
※ ‘11년 시스템반도체 성장률(iSuppli, 2011.6) : Microcomponent(13.7%), Logic(3.9%), Analog(8.0%)

※ 삼성전자는 ‘11.1H기준, 시스템반도체 부문에서 매출액 45억 달러를 기록, 미국 퀄컴을 처음으로 추월(전자신문, 8.29)

○ 국내 시스템반도체의 세계 시장점유율도 ‘10.4Q, 3%를 돌파하였으며 ‘11.2Q에는 전년동기대비 0.9%p 상승한 3.5% 기록, 대만(‘10.2Q : 5.4%→‘11.2Q : 5.0%)과의 격차를 축소

시스템반도체 매출액 성장률 및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



자료 : iSuppli, 2011.8.

주 : 시스템반도체(Microcomponent IC, Logic IC, Analog IC 등)

▶ 삼성전자·인텔·TSMC를 중심으로 시스템반도체 미세공정 경쟁 본격화

○ 모바일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업체 간 제품 성능경쟁이 확산되면서 기능을 높이고 전력 사용량은 줄일 수 있는 미세공정 개발이 관건으로 부각

○ 삼성전자는 28나노 공정 시제품 생산에 성공한 데 이어 20나노 공정테스트를 위해 ARM프로세서 테스트칩 개발을 완료

○ 인텔은 내년 초부터 22나노 3차원 공정으로 차세대 CPU(아이비브리지)를 생산할 예정이며, TSMC는 연말 28나노 공정을 적용해 제품을 양산예정

시스템 반도체 20나노 대 공정

구 분	공 정	양산 계획
인텔	22나노 3D 공정	2012년 상반기
삼성전자	28나노 HKMG(High-K Metal Gate)*, 20나노 공정	연말, 이르면 내년 상반기
TSMC	28나노, 20나노	연말, 내년 3분기

자료 : 전자신문, 2011.7.13

* HKMG(High-K Metal Gate) : 공정이 미세화 될수록 증가되는 누설전류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동작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최첨단 저전력 로직공정 기술

2) 수출 여건

▶ PC 수요 부진이 지속되면서, 메모리반도체 가격 사상 최저치로 급락

○ 미국·일본의 신용등급 강등과 유럽 재정위기 확산, 중국의 긴축정책 유지 등 경제 불확실성 확산과 이에 따른 PC 소비 감소, HP의 PC사업 분사 등 D램 수요 측면의 악재가 이어지며 D램 가격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

○ '10년 2달러를 상회하던 1Gb D램 가격은 '11.8월 사상 최저 수준인 0.57달러(DDR3 1Gb 128M×8 1333㎒ 기준)까지 하락하면서, 모든 메모리 제조사가 제품을 생산할수록 손해를 보는 `캐시버닝` (Cash Burning) 상태에 돌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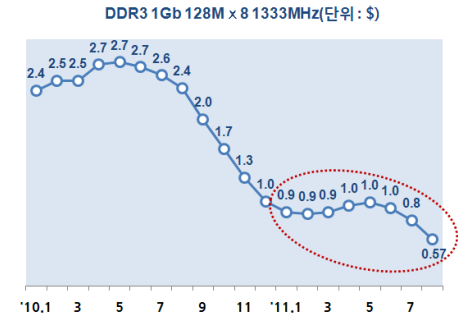
○ 낸드플래시 가격도 세계 경기 침체와 불안정한 금융상황 등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셋트업체들의 보수적인 재고 전략으로 '11.4월을 기점으로 하락세 지속

- 낸드플래시는 애플의 아이폰5, 삼성의 셀룩스, 넥서스 프라임 등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출시, SSD를 채용한 노트북 확대로 수급 안정화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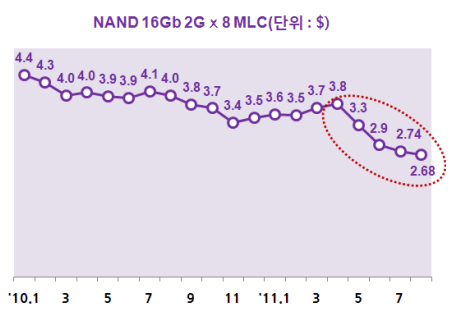
○ 메모리반도체 가격 하락세는 대만과 일본 기업의 감산, 특히 대만 한계기업의 시장 퇴출 등이 예상되는 4분기를 기점으로 반등이 기대

메모리반도체 가격 동향

D램



낸드플래시



주) 낸드플래시 6, 7월 가격은 Spot Price 평균임
자료 : DRAMeXchange, 2011.8.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위한 서버와 모바일 스마트기기가 반도체 시장의 블루오션으로 부상

○ PC용 D램 가격이 원가이하로 급락한 가운데, 모바일 D램과 낸드플래시의 주 수요처인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의 전략 모델들이 하반기 대거 출시될 예정

※ 정해진 규격에 맞게 메모리 반도체를 제작, 공급하는 PC용 D램과 달리 모바일 기기용 D램은 고객의 주문에 따라 사양과 용량이 상이하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국내업체의 프리미엄 D램 비중은 70% 수준

○ 한편,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에서 'AP+D램+낸드플래시+컨트롤러' 등을 적층함으로써 반도체가 차지하는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셋트업체들의 수요는 가속화 추세

○ 이에, 고객 대응능력이 우수하고, 모바일 AP·CMOS·DDI 등 시스템반도체 뿐만 아니라 모바일 D램 등 스페셜 D램과 낸드플래시 양산능력에서 타 경쟁사에 앞서있는 국내업체의 수혜가 기대

3) 수출 동향

▶ 8월 반도체 수출은 D램 등 메모리반도체의 부진으로 전년 동월대비 13.4% 감소하였으나, 시스템반도체의 선전으로 전월대비 1.7% 상승

○ D램(9.8억 달러, △48.1%) 수출은 '10.12월 이후 9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며, '09.9월(9.3억 달러) 이후 약 2년 만에 월간 기준 수출액이 10억 달러 미만으로 하락

○ 반면 낸드플래시는 단가하락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출시와 맞물려 전년 동월대비 9.4%, 전월대비 3.4% 증가한 2.7억 달러 기록

○ 시스템반도체는 모바일 AP, CMOS, DDI 등의 수출확대와 파운드리 물량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월대비 22.1% 증가한 17.4억 달러로 견조한 성장세 지속

※ 하반기에는 애플의 아이폰5, 보급형아이폰 뿐만 아니라 모토로라, HTC, 림, 소니에릭슨 등도 전략 스마트폰 출시가 예정돼 있어 이에 필요한 모바일용 시스템반도체 수출 호조세는 지속될 전망

반도체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10.8	9	10	11	12	'11.1	2	3	4	5	6	7	8
반도체	47.4	47.7	45.6	41.3	42.5	40.9	36.5	44.7	41.5	41.7	42.1	40.4	41.1
	(64.9)	(48.6)	(32.8)	(18.1)	(23.5)	(23.9)	(9.2)	(10.6)	(△0.6)	(△4.9)	(△3.9)	(△12.5)	(△13.4)
메모리	27.9	26.6	24.5	20.3	21.4	21.8	18.8	23.4	22.2	22.1	21.3	18.2	17.5
	(90.4)	(65.8)	(37.6)	(4.4)	(7.2)	(11.3)	(△2.8)	(2.6)	(△9.6)	(△15.3)	(△15.8)	(△31.1)	(△37.4)
D램	18.8	17.5	16.4	12.7	12.6	11.5	11.0	12.8	12.5	12.5	12.2	10.1	9.8
	(116.9)	(86.9)	(56.1)	(2.9)	(△8.9)	(△16.2)	(△14.7)	(△14.8)	(△22.2)	(△28.7)	(△27.0)	(△43.3)	(△48.1)
낸드	2.5	2.2	2.1	2.2	2.5	2.5	2.2	2.7	2.9	3.2	2.4	2.6	2.7
	(26.9)	(4.3)	(△8.9)	(11.0)	(39.9)	(20.8)	(8.3)	(10.9)	(13.9)	(34.7)	(1.1)	(8.4)	(9.4)
시스템반도체	14.2	15.3	15.1	15.6	15.4	13.8	12.2	15.1	13.7	14.3	15.2	15.9	17.4
	(23.6)	(18.4)	(15.1)	(25.9)	(38.5)	(36.9)	(16.4)	(22.2)	(11.5)	(10.8)	(14.8)	(12.8)	(22.1)

▶ (지역별) 對중국(홍콩포함) 반도체 수출은 시스템반도체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D램 등 메모리반도체 수출이 급락하면서 5개월 연속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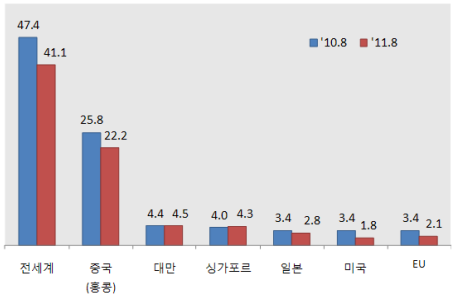
○ 중국(홍콩 포함, 22.2억 달러, △13.8%), 미국(1.8억 달러, △47.8%), 일본(2.8억 달러, △16.7%), EU(2.1억 달러, △39.1%) 등에 대한 반도체 수출이 두 자릿수 감소세를 기록

○ 반면, 대만(4.5억 달러, 0.1%)과 싱가포르(4.3억 달러, 6.0%) 수출은 각각 낸드플래시와 시스템반도체 수출호조로 소폭 상승세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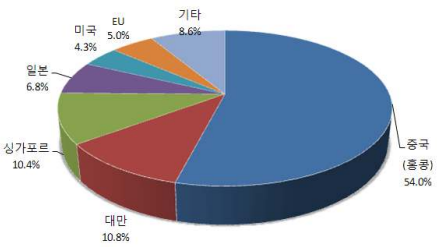
주요 국가(지역)별 반도체 수출 및 비중('11.8월)

(단위 : 억 달러, %)

국가별 수출(억 달러)



수출 비중(%)



3 디스플레이 패널

1) 시장 환경

▶ '11년 2분기, 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15.4% 감소했으나, 3D 패널 등 프리미엄 제품 시장을 중심으로 회복세(전분기 대비 11.2% 증가, 194억 달러)

○ 대형 LCD 패널(9.1인치 이상)은 TV, 노트북, 모니터 등 기존 시장의 회복과 신규 시장인 태블릿 PC 시장의 성장으로 전분기 대비 매출 증가

- '11년 2분기 기준, LCD 패널 중 5.3%를 보이고 있는 태블릿 PC 패널은 전방 수요 확대 등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매출 비중의 확대 추세

※ 태블릿 PC 패널의 매출 비중(%) : ('10.1Q)0.4 → (2Q)1.1 → (3Q)2.1 → (4Q)3.2 → ('11.1Q)3.3 → (2Q)5.3

- 다만, 미국, 유럽 등 선진 TV 시장의 회복 지연과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한국, 대만, 일본 등의 주력 시장인 LCD 패널 중 TV 패널의 매출 비중은 하락세

※ TV 패널의 매출 비중(%) : ('10.1Q)62.6 → (2Q)62.5 → (3Q)68.5 → (4Q)63.9 → ('11.1Q)60.2 → (2Q)58.7

○ 한국과 대만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성장과 일본의 몰락

- 한국은 모니터, 노트북, TV 등 기존 시장에서 대만과 경쟁을 하고 있으나 태블릿 PC, 공공 디스플레이 영역에서 독보적인 시장 지위 유지

※ 한국의 태블릿 PC/공공 디스플레이 패널 점유율(%) : ('10.1Q) 97.1 / 73.9 → (2Q) 89.4 / 67.4 → (3Q) 91.7 / 67.7 → (4Q) 95.7 / 73.1 → ('11.1Q) 89.8 / 72.4 → (2Q)85.0 / 74.5

- 상대적으로 모니터 패널 중심이었던 중국 업체는 노트북, TV 등의 시장으로 영역을 다각화를 통해 전분기 대비 53.8% 성장세를 보인 반면 TV 패널에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 일본('11년 2분기 88.2%)은 13.8% 감소

※ 중국 매출 중 모니터 패널 비중(%) : ('10.1Q)67.5 → (2Q)71.7 → ('11.1Q)71.4 → (2Q)58.6 ," 중국 업체 매출 중 모니터용 패널 비중은 감소했으나, TV 및 노트북용 패널 비중은 증가"

▶ 한국에 대한 경쟁국의 견제 확대 및 다양화 추세

○ 디스플레이 산업이 불황기임에도 불구 한국의 점유율은 50% 이상 유지

- 이에 일본, 대만 등 LCD 패널 경쟁국들은 전방위적으로 한국에 대한 견제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 대형 LCD 패널 시장에서 입지를 상실한 Toshiba, Sony, Hitachi 등 일본 업체들은 중소형 패널 사업 통합에 전격 합의함으로써 스마트폰 등 모바일 패널 시장에서 국내 견제 가속화할 예정

※ 상기 3社는 '11년 6월 통합을 결의한 바 있으며 금번 합의를 통해 통합안을 구체화. 출자금은 약 2,000억 엔이 될 전망으로 민관협력 펀드인 산업혁신기구가 70%를 출자하고 3사가 10%씩 분담해 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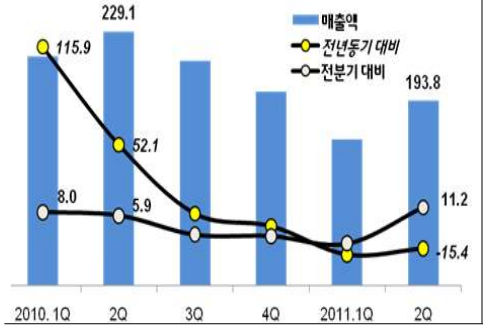
- 대형 LCD 공급 과잉, 전방 수요 불안 등에 따른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업체들은 감산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 대만 업체들은 공격적으로 생산량을 유지·증가시키고 있는 상황

※ CMI(臺)는 LCD 패널 면적 기준으로 6월 241.5m²에서 7월 246.0만m²으로 1.8%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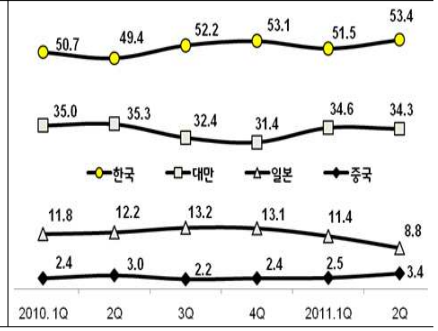
대형 LCD 패널(9.1인치 이상) 시장 성장률 및 점유율(매출액 기준)

(단위 : 억 달러, %)

<시장 성장률>



<점유율>



자료 : DisplaySearch(2011.8.25)

2) 수출 여건

▶ 국내 업체들의 감산, 투자 축소 계획 등 LCD 사업 구조 개편은 수출에 부정적

○ 선진 시장 및 세계 경기 불안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업체들의 LCD 사업 구조 개편 진행 중

- 국내 업체들의 신규 생산라인 증설 등 LCD 사업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가동률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

※ 국내 업체들의 8월 생산 가동률(%, 노무라연구소) : 삼성전자(83), LG디스플레이(65)

- 이에 국내 업체들은 하반기 LCD보다는 AMOLED의 생산 확대 및 투자를 선회하거나 중소형 패널 및 3D 패널 등 고부가가치 제품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

○ 다만, 글로벌 시장에서 3D TV 패널의 증가는 가격 하락 등 부정적인 요인들의 영향력을 일정수준 상쇄시킬 것으로 판단됨

※ '11년 2분기 출하량 기준, 대형 3D TV 패널은 전분기 대비 118% 증가한 4.9백만 개이며, 40인치 이상 LCD TV 시장에서의 채용율은 전분기 대비 9%p 증가한 21.7%(DisplaySeach, 2011.8.30)

○ 한편, 중장기적으로 국내 디스플레이 수출 개선 등을 위해 중국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

- 최근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업체들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중국 정부는 LCD 패널 수입 관세를 인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

※ 내년부터 현 5% 수준인 LCD 모듈 관세는 8%~10%,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가 중국에 주로 수출하는 LCD 반제품인 셀(Cell) 관세(현 3%)도 최고 8%까지 증가시킬 전망

- 이는 지속되고 있는 시장의 가격 인하 압박 속에 국내 LCD 패널의 가격 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시장 및 수출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일각에서는 국내 업체들의 중국 투자 확대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업체들의 해외 생산 확대, 국내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 농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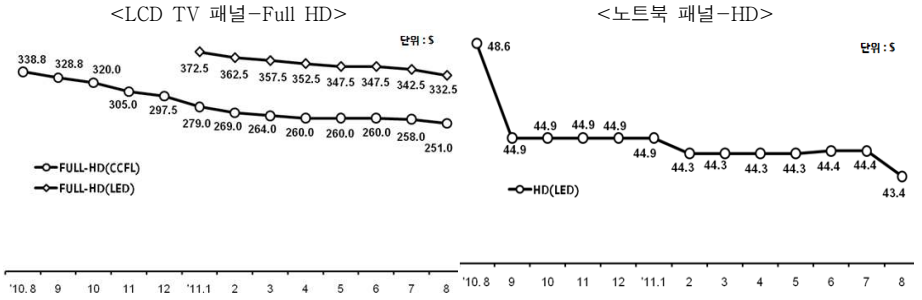
▶ LCD TV 패널 가격 하락세 지속은 국내 디스플레이 수출 실적에 부정적

○ LCD TV 패널 가격은 미국 더블딥 우려, 유럽 재정 불안 등 선진 시장의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전방 수요 둔화로 하락세 지속

- 태블릿 PC 등 신규 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HP의 PC 철수 발표와 맞물려 그동안 보합세를 보였던 노트북 패널도 하락

○ 원가 수준 이하까지 하락한 LCD 패널 가격의 추가적인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외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감산, 투자 축소 등의 가격 안정화 노력 중

디스플레이 가격 동향(평균)



주) LCD TV 패널(32인치~47인치) 평균, 노트북 패널(10.1인치~17.3인치) 평균
자료 : Witsview, 2011.8

3) 수출 동향

▶ 8월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은 선진 시장 수요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전방 수요 감소와 패널 가격 하락 등으로 21.2% 감소한 25.2억 달러 기록

▶ **(지역별)** 중국(홍콩포함), 유럽, 남미 등 주요 수출 시장 동반 하락

○ 3D 등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했던 중국(홍콩포함)은 재고 부담 등으로 7월에 이어 전년동기 대비 1.9% 감소한 18.9억 달러 기록

- 선진 수요 시장인 EU(3.1억 달러, △52.1%)와 유럽 지역 생산 거점 동유럽(2.8억 달러, △54.3%), 북미 지역 생산 거점 남미(1.6억 달러, △37.5%) 수출 감소

※ 다만, 호황기였던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감소했으나, 7월부터 전월대비로는 성수기 진입 대비 수요 증가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럽(15.6%↑), 동유럽(22.8%↑), 남미(19.2%↑) 등은 각각 증가

디스플레이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 대비)

구분	'10.8	9	10	11	12	'11.1	2	3	4	5	6	7	8
패널 (증감율)	31.9 (27.5)	31.9 (25.2)	28.6 (8.9)	28.9 (8.7)	27.3 (9.5)	26.5 (0.8)	25.6 (4.0)	22.6 (△3.2)	27.0 (△4.8)	26.3 (△7.2)	27.1 (△6.8)	25.2 (△21.2)	25.2 (△21.2)
부분품 (증감율)	3.5 (26.1)	3.1 (6.8)	2.8 (△6.0)	2.7 (4.8)	2.9 (15.6)	2.9 (7.7)	2.7 (△2.2)	2.3 (△14.6)	3.2 (△3.6)	3.3 (△9.8)	2.9 (△7.3)	2.8 (△19.1)	2.6 (△15.0)

4 TV

1) 시장 환경

▶ '11년 2분기 세계 평판TV 시장은 전분기 대비 실적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전년동기 대비 성장률이 1분기 실적을 하회

○ 중국, 동유럽 등의 시장이 호조를 보였으나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과 유럽의 재정 위기 등의 여파로 북미/서유럽 시장의 수요부진 지속

- '11년 세계 평판TV 출하량: 1Q (4,790만 대, 8.8%) → 2Q (4,871만 대, 5.2%)

※ LCD TV 출하량은 전년대비 6.4% 증가한 4,447만 대 기록 (평판TV시장의 91.3% 점유)

- '11년 세계 평판TV 시장: 1Q (238.5억 달러, △1.8%) → 2Q (258.3억 달러, △3.0%)

※ LCD TV 시장은 전년대비 2.5% 줄어든 227.3억 달러 기록 (평판TV시장의 88% 점유)

▶ 국내 업체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평판TV 37.1%, LCD TV는 35.2%, 그리고 PDP TV는 51.2%를 기록(매출액 기준)

○ 전체적으로 전분기 매출이 다소 증가하며 점유율도 소폭 상승

○ 일본 및 중국 업체들도 Panasonic의 도약과 자국 시장의 확대를 배경으로 점유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국내 업체의 세계 TV 시장 점유율

(단위 : 억 달러, %)

평판TV	2009	2010	2011.1Q	2011.2Q	LCD TV	2009	2010	2011.1Q	2011.2Q
세계 시장	962.2	1,131.5	238.5	258.3	세계 시장	843.9	1,001.2	214.9	227.3
(증감률)	(0.1)	(17.6)	(△1.8)	(△3.0)	(증감률)	(32.1)	(31.6)	(△1.0)	(△2.5)
국내 업체	344.9	406.7	87.5	95.9	국내 업체	290.8	342.0	74.5	80.0
(증감률)	(6.0)	(17.9)	(△1.6)	(△6.5)	(증감률)	(8.8)	(17.6)	(△1.8)	(△6.6)
점유율	35.8	35.9	36.7	37.1	점유율	34.5	34.2	34.6	35.2
중국 업체	146.2	162.7	39.6	43.8	중국 업체	140.2	156.5	37.6	41.9
점유율	15.2	14.4	16.6	17.0	점유율	16.6	15.6	17.5	18.4
일본 업체	361.3	434.6	83.7	94.5	일본 업체	304.9	376.7	75.5	81.6
점유율	37.5	38.4	35.1	36.6	점유율	36.1	37.6	35.1	35.9

* 증감률은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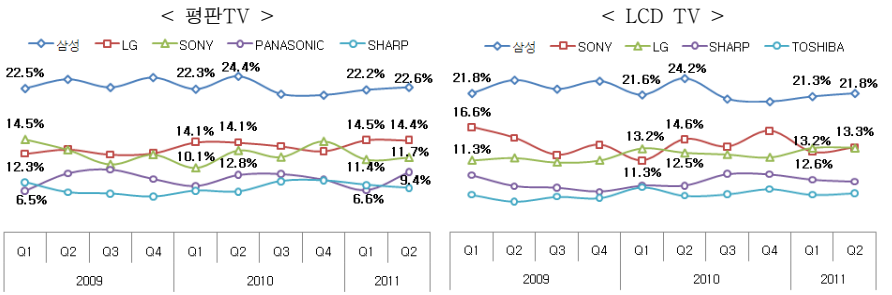
자료 : DisplaySearch, 2011.5./2011.8.

- 상위 5대 업체의 매출 기준 평판TV 실적을 보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전분기에 이어 1, 2위를 유지

※ Panasonic의 점유율이 2.8%p 증가. 이는 PDP TV 부문의 점유율이 크게 높아진 데 기인(30.7%→40.5%)

※ Sony는 LCD TV 부문 점유율을 0.7%p 높이며 2위 자리에 복귀(3위 LG와 0.05%p 차이)

메이저 기업들의 2011년 평판TV 시장 점유율(매출 기준)



자료 : DisplaySearch, 2011.5./20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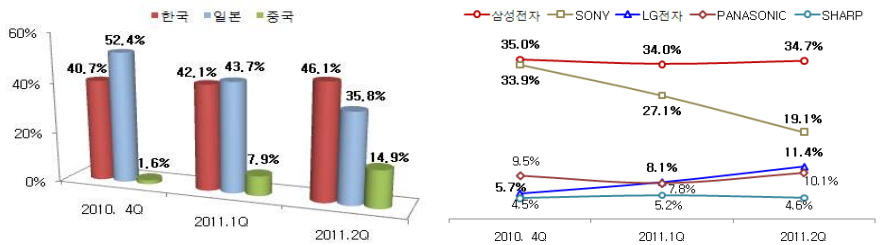
▶ '11년 2분기 3D TV 시장은 전분기 대비 두드러진 성장세

○ 출하량은 491만 대로 전 분기(208만 대) 대비 136% 성장. 또한 매출 규모도 61억 달러로 전분기(28억 달러) 대비 116% 성장

※ 평판TV 시장내 3D TV 비중이 전분기 대비 빠르게 확대: 출하량 4.3%→10%, 매출 11.8%→24%

※ LG의 시장 점유율 상승이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Sony는 가파른 하강 곡선

3D TV 시장 점유율(매출 기준)



< 주요 국가 별 점유율 >

< 주요 기업별 점유율 >

자료 : DisplaySearch, 2011.8.

2) 수출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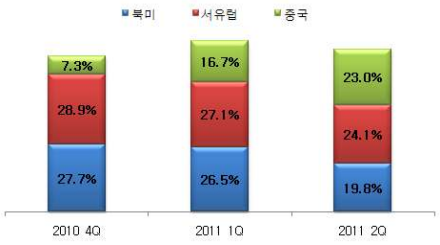
▶ 가파른 상승 곡선을 보이는 중국 3D TV 시장, 국내 기업은 고전

○ 세계 3D TV 시장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자국 기업 점유율이 급격히 확대되며 시장 내 국내 기업의 위상 하락

※ 3D TV 시장 내 중국 시장 비중 : 2010 4분기 7.3% → 2011년 2분기 23.0%

※ 중국 3D TV내 시장의 국내 기업 점유율 : 2010 4분기 28.0% → 2011년 2분기 11.1%

중국 3D TV 시장 점유율(출하량 기준)



< 세계 3D TV 시장: 주요 국/지역 비중 >

자료 : DisplaySearch, 20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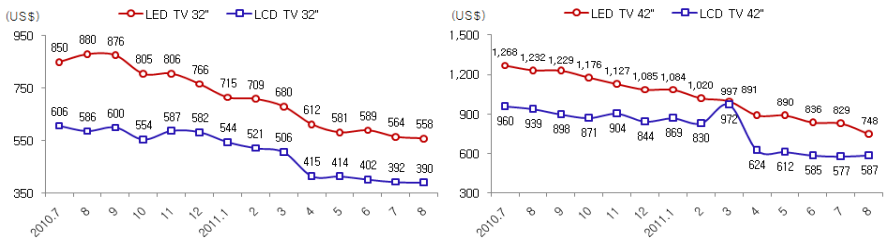
구 분		2010 4Q	2011 1Q	2011 2Q
	Hisense	8.5%	23.8%	24.5%
	Skyworth	0.0%	9.4%	15.1%
	Changhong	15.2%	12.7%	14.0%
	기타	1.7%	14.4%	22.8%
	소계	**25.4%**	**60.4%**	**76.5%**
	Samsung	26.4%	16.5%	9.0%
	LGE	1.6%	0.8%	2.1%
	소계	**28.0%**	**17.4%**	**11.1%**
	Sony	35.2%	16.1%	7.7%
	기타	11.5%	6.2%	4.8%
	소계	**46.7%**	**22.3%**	**12.5%**

< 중국 3D TV 시장 내 경쟁 현황 >

▶ 메이저 기업들의 점유율 경쟁, 수요 확대를 위한 프리미엄 TV 가격 하락 등이 맞물리며 가격 하락 지속

- 연초 대비 가격 하락률: LED TV 42" (△31%), LED TV 32" (△22%)

LCD TV / LED TV 가격 동향



자료 : Witsview, 2011.8.

3) 수출 동향

▶ 8월 TV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2% 증가한 7.7억 달러로 집계

○ 프리미엄 제품 수출 둔화, 동월 TV 수출의 84.4%(6.5억 달러)를 차지하는 부분품 수출 둔화 등으로 전체 TV 수출 증가율이 전월대비 하락

▶ (지역별) 대양주(101.9%), 중동(49.3%), 중국(35.9%), 아세안(22.1%), 미국(20.1%) 등에 대한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동유럽(△30.6%), EU(△27.9%) 등에의 수출은 감소

○ 전월에 이어 큰 폭의 對중국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對미국 수출이 크게 성장 반전하며 이 지역 공급 거점인 중남미 지역 수출 증가세 유지

※ 對중국 수출 증가율 : '11.6월 3.0% → 7월 △52.7% → 8월 35.9%

※ 對미국 수출 증가율 : '11.6월 △49.0% → 7월 △12.7% → 8월 20.1%

※ 對남미 수출 증가율 : '11.6월 10.9% → 7월 43.7% → 8월 20.8%

○ 전월 둔화되었던 對EU 수출 하락세가 다시 확대되며 이 지역 공급 거점인 동유럽 지역에 대한 수출 하락세도 동반 확대

※ 對EU 수출 증가율 : '11.6월 △48.2% → 7월 △3.1% → 8월 △27.9%

※ 對동유럽 수출 증가율 : '11.6월 △37.5% → 7월 △6.5% → 8월 △30.6%

칼라TV(부분품 포함)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 대비)

구분	'10.8	9	10	11	12	'11.1	2	3	4	5	6	7	8
칼라TV (부분품 포함)	7.0 (57.6)	6.6 (22.1)	6.2 (26.9)	5.6 (21.8)	5.2 (3.0)	6.4 (18.9)	5.9 (16.0)	7.1 (11.1)	6.3 (△8.6)	6.0 (△8.4)	6.4 (△2.0)	8.6 (22.0)	7.7 (10.2)
LCD TV	0.5 (46.4)	0.6 (9.8)	0.6 (△11.7)	0.6 (△7.0)	0.5 (△16.3)	0.5 (4.4)	0.5 (46.5)	0.6 (39.5)	0.7 (33.3)	0.7 (25.7)	0.8 (11.8)	0.9 (48.6)	0.9 (59.3)
PDP TV	0.3 (14.0)	0.3 (7.5)	0.3 (43.3)	0.3 (17.6)	0.2 (5.6)	0.3 (31.0)	0.3 (56.1)	0.3 (28.1)	0.3 (8.2)	0.3 (△9.2)	0.2 (△12.8)	0.2 (△18.6)	0.3 (16.9)
TV 부분품	6.1 (63.2)	5.7 (25.5)	5.3 (33.3)	4.8 (28.3)	4.5 (7.8)	5.6 (20.9)	5.2 (12.9)	6.2 (8.6)	5.3 (△13.0)	5.0 (△11.2)	5.3 (△3.2)	7.4 (21.6)	6.5 (5.8)

5 컴퓨터 및 주변기기

1) 시장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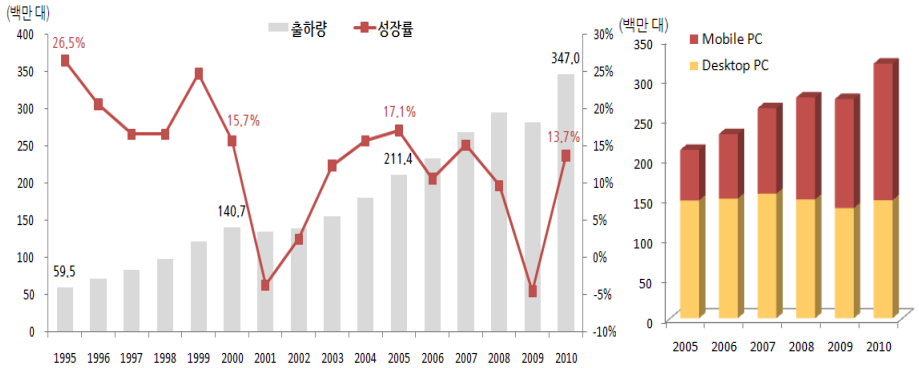
▶ PC 시장점유율 1위인 HP의 PC 사업부 분사는 전통적인 PC산업의 변화를 상징

○ HP 전체 매출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PC사업은 가장 큰 분야임에도 순이익은 5%에 불과, 시장침체가 계속되면서 기업 재무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HP는 급변하는 IT산업 대응 및 재무 건전성 향상을 위해 PC 사업을 분리하고,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등 기업용HW와 비즈니스 정보 분석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

※ '11년 8월, 웹OS 기반의 터치패드 태블릿 생산 중단을 선언(19일)하고 16GB버전 가격을 99.99달러로 세일해 모두 판매하였으며, 10월 말까지 제한적으로 추가 공급할 것을 발표

[참고] 지난 15년간 세계 PC 시장 추이(출하량 기준)



【참고】 전 세계 PC 시장규모는 '10년 기준 3억 4,700만 대 수준으로 '95년 대비 약 6배로 성장하였으나, 시장성장률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

– (데스크탑 PC) '05년 대비 연평균 성장률 0.02%(CAGR)에 그쳐 성장 정체

– (모바일 PC) '05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22%(CAGR)를 기록, PC시장의 성장을 견인

자료 : Gartner(2010.12.), IDC(2009.3., 2011.7.)

▶ 신흥 PC시장의 중심에 선 중국, '11년 2분기에 사상 처음으로 미국 시장 규모를 추월

○ '11년 2분기 중국 시장에 출하된 PC는 1,850만대로 미국 시장의 1,770만대를 넘어 글로벌 전체 PC 출하량의 22%를 차지함으로써 미국(21%)을 추월

- 또한 매출액 기준 119억 달러를 기록, 미국(117억 달러)을 넘어 글로벌 최대 PC시장으로 등극

- 향후 5년 간 중국의 PC 판매량은 노트북과 넷북을 중심으로 평균 18%의 성장을 보일 전망이며, 이는 전 세계 평균 성장 예상치인 8%보다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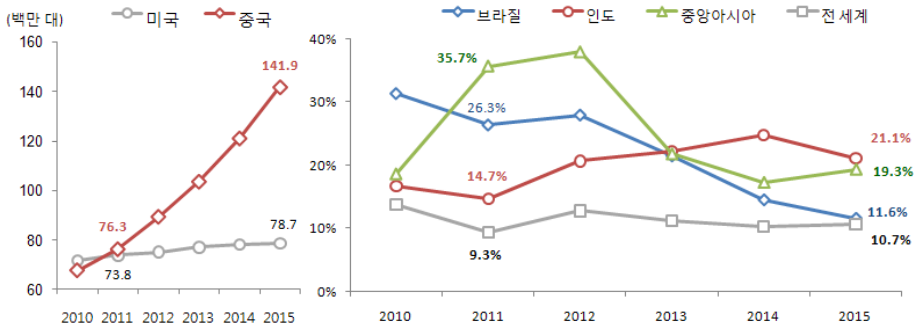
○ 중국 서부지역(충칭, 청두)이 PC 업체 거점으로 부상하면서 Intel, Dell, HP 등 대형 PC업체들이 생산기지 및 영업 센터 설립

- 12.5 규획이 서부대개발을 우선 지원하면서 2013년까지 충칭지역에서 전 세계 노트북 판매량의 1/3, 약 1억 대 생산을 목표로 함

▶ 중국을 선두로 중앙아시아 및 인도, 브라질 등이 '15년까지 연평균 20% 이상의 PC 시장성장이 예상되는 신흥시장으로 전 세계 PC시장 성장을 주도할 전망

※ '10–'15 연평균 성장률(CAGR, %) 전망: 브라질(20.2), 인도(20.6), 중앙아시아(26.1)

중국 PC 시장규모 및 신흥 PC시장 성장률



자료 : Gartner(2011.6., 2011.8.)

2) 수출 여건

▶ 전 세계 태블릿PC 시장은 '10년 1,800만 대에서 '11년 5,900만 대 규모로 성장할 전망, 하반기에는 저가 태블릿PC 출시 확대로 인한 가격경쟁 심화 예상

○ 북미시장에서 HP가 재고정리 중인 터치패드(99달러)가 연일 매진되고, Vizio가 299달러에 출시한 태블릿PC 판매가 증가하는 가운데 아마존이 250달러 태블릿 PC 출시(10월 예정)를 발표

- 애플의 아이패드 2와 갤럭시 탭 10.1은 499달러의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저가형 태블릿PC와 차별화된 기술로 고성능 프리미엄 태블릿PC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해야 할 것

▶ 삼성전자는 글로벌 시장 확대와 제품 다변화 전략을 통해 세계 7위권 수준인 PC 사업의 순위 지각 변동을 꾀함

○ 글로벌 시장 확대와 신규 태블릿PC 공개로 태블릿PC 라인업 확충 예정

- 갤럭시 탭 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독일과 호주 등에서의 판매가 지연되고 있으나, 러시아와 중국시장에 갤럭시 탭 10.1을 출시하는 등 시장 확대를 지속

- 9월 2일 독일 베를린 국제 가전박람회 'IFA 2011'에서 AM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태블릿PC '갤럭시 탭 7.7' 공개

※ 삼성전자의 기출시 태블릿PC: 갤럭시 탭 7('10.11월), 갤럭시 탭 10.1('11.6월), 갤럭시 탭 8.9('11.8월)

○ 태블릿PC와 차별화된 노트북 PC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프리미엄 노트북 PC 시장에서 '시리즈9'과 '시리즈7'으로 입지를 굳히고 애플의 '맥북에어(Macbook Air)'와 경쟁할 것

- IFA 2011에서 '시리즈7 크로노스', '슬레이트PC 시리즈7' 등 프리미엄 노트북 PC 신제품 공개

시리즈7 크로노스와 슬레이트PC 시리즈7



<시리즈7 크로노스>



<슬레이트PC 시리즈7>

-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 프리미엄 마케팅을 전개하여 프리미엄 노트북 PC 판매 열풍을 '시리즈9'에서 '시리즈7'까지 이어갈 방침

※ 삼성전자 노트북 PC 판매 : ('08) 270만 대 →('09) 580만 대,→('10) 1,030만 대, '11년 1,700만~1,800만 대 예상

※ 지난 5월 '시리즈9' 11.6인치 모델을 출시한 데 이어 14~15인치 제품도 하반기에 선보일 예정이며, 시리즈9의 9월 2일 현재 누적 판매량은 약 8만 5천 대로 발표 됨

▶ 프리미엄 노트북 PC의 SSD 장착이 확대되는 한편, 별도의 저장 공간 확보를 위한 외장 HDD 수요도 동반 증가할 것으로 기대

○ SSD는 프리미엄 노트북의 저장장치를 시작으로 데스크탑의 OS 드라이브용으로까지 활용되며 HDD를 빠르게 대체 중

※ iSuppli('11.8.)에 따르면, 세계 SSD 시장 규모는 '10년 22억 8,700만 달러에서 올해는 44억 1,200만 달러로 90% 가까이 성장하여 '14년에는 성숙기에 이를 전망

○ SSD를 채용한 초경량 노트북에서도 고용량 미디어 파일 저장을 위한 외장 HDD 수요가 함께 증가함에 따라, 대기업과 함께 중기업에서도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외장 HDD 제품을 선보이며 시장 확대에 나섬

※ 삼성전자(자개장식 케이스), 씨게이트(WiFi 모듈 내장), 웨스턴디지털(노트북용 1TB 용량), 도시바(속도 6배 증진, 내비게이션 호환), LG전자(전자파 차단), 에이데이타코리아(방충, 방수 기능), 새로텍(1.8인치 소형화), 히타치GST(클라우드 스토리지 기능), 버팔로(USB 3.0 지원)

3) 수출 동향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은 태블릿PC와 모니터 수출 증가에 힘입어 크게 성장, 전년 동월 대비 35.8% 상승한 7.2억 달러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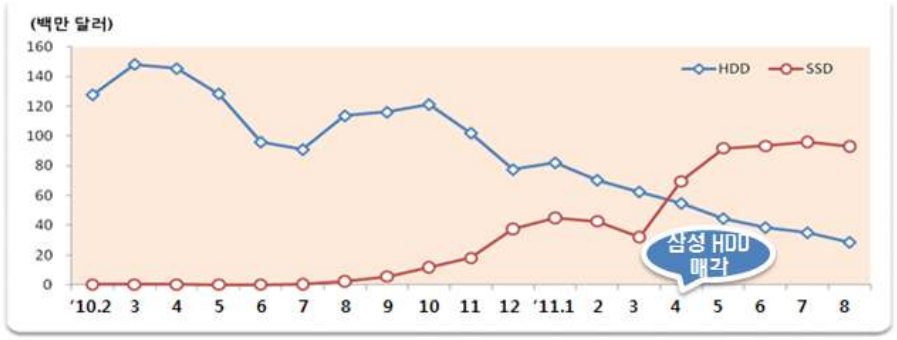
○ 독일 등 유럽지역에서의 특허 소송에도 불구하고 갤럭시 탭 10.1이 선전하여 전체 수출 증가에 기여, 프린터는 전년 동월 대비 11.4% 상승한 1.0억 달러 수출로 증가세 유지

※ 태블릿PC 수출(억 달러) : ('11.2) 0.66→(3) 1.21→(4) 1.25 →(5) 0.71→(6) 1.41→(7) 1.70→(8) 2.00

- SSD는 9,3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HDD 수출 하락의 영향으로 보조기억장치(1.3억 달러, △12.9%)가 소폭 하락

○ 한편, 부진이 계속됐던 모니터 수출이 8월 1.8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12.9%), 전월 대비(20.0%) 성장

HDD vs SSD 수출 추이



자료 : NIPA(2011.9.)

▶ (지역별) 중국(홍콩 포함, 2.6억 달러, 32.1%) 내수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8월 수출 증가를 이끌고 있으며, 특히 아프리카(0.1억 달러, 230.8% 증가) 및 중동(0.3억 달러, 172.9% 증가), 인도(0.2억 달러, 170.4% 증가) 등 신흥시장에서 세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

- 수출이 다소 감소한 미국(1억 달러, △2.4%)은 '11년 이후 태블릿PC를 제외한 기존 IT 하드웨어 제품(PC 등)의 판매 성장률이 장기적인 저점을 형성 중인 것으로 평가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분	'10.8	9	10	11	12	'11.1	2	3	4	5	6	7	8
컴퓨터 및 주변기기	5.3 (△5.7)	5.9 (△7.4)	7.3 (11.0)	7.8 (18.3)	6.5 (△1.2)	5.7 (△6.3)	4.9 (△18.2)	6.4 (△6.7)	5.9 (△12.2)	5.5 (△11.8)	6.3 (△3.2)	6.7 (16.1)	7.2 (35.8)
보조 기억장치	1.5 (△2.9)	1.5 (△6.9)	1.5 (△8.5)	1.3 (△20.7)	1.3 (△9.7)	1.5 (△20.5)	1.2 (△27.7)	1.0 (△42.1)	1.3 (△28.2)	1.4 (△12.2)	1.4 (8.5)	1.4 (8.2)	1.3 (△12.9)
프린터	0.9 (14.4)	1.0 (△2.9)	1.1 (21.0)	0.9 (18.0)	1.0 (8.7)	1.1 (22.1)	0.8 (△10.3)	1.1 (20.8)	1.1 (5.2)	1.0 (11.1)	1.1 (10.4)	1.1 (10.3)	1.0 (11.4)
모니터	1.6 (△21.7)	1.6 (△27.7)	1.6 (△26.2)	1.7 (△20.3)	1.9 (△22.3)	1.5 (△21.5)	1.4 (△18.0)	1.7 (△29.3)	1.5 (△33.0)	1.5 (△27.7)	1.6 (△27.0)	1.5 (△25.8)	1.8 (12.9)

주) 컴퓨터 및 주변기기 중 컴퓨터, 스캐너 등 일부 주변기기, 컴퓨터 부품 등을 미포함

7 가정용기기

1) 시장 환경 및 수출 여건

▶ 유럽 냉장고 시장, 상반기 실적에서 삼성전자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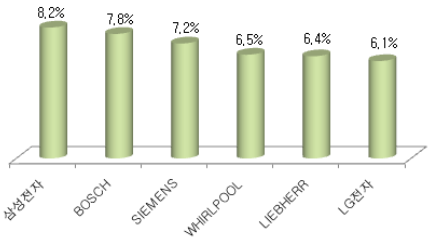
○ 금년 상반기 유럽 냉장고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금액기준 8.2% 점유율로 1위를 차지

※ 삼성전자는 지난해 상반기에도 유럽 냉장고 시장에서 8.2%로 1위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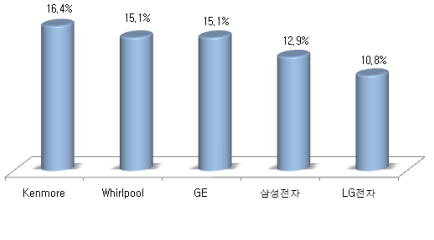
○ 역시 금년 상반기 금액 기준으로 미국 냉장고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각각 4, 5위를 차지

○ 한편, 유럽 시장의 경우 냉동실을 하단에 배치하는 것을 선호하는 특성이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에너지 효율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분석

미국/유럽 냉장고 시장 주요 벤더별 점유율(2011 1H)



(가) 유럽 냉장고 시장 Top 6 벤더 점유율



(가) 미국 냉장고 시장 Top 5 벤더 점유율

자료 : 전자신문('11.8.25.), 재구성. (원소스: GfK, Stevenson Company)

▶ LG전자, 금년 상반기 미국 드럼세탁기 시장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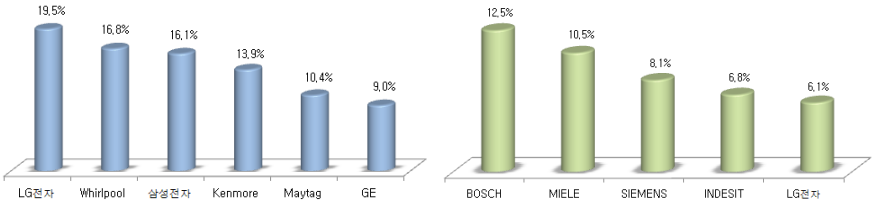
○ 금년 상반기 미국 드럼세탁기 시장에서는 LG전자가 금액기준 19.5%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

- LG전자는 지난해 상반기에 이어 1위를 유지했고, 삼성전자는 점유율을 높이면서 4위에서 3위로 상승

○ LG전자는 유럽 드럼세탁기 시장에서도 Top5에 진입

- 지난해 5.8% 점유율로 6위에 머물렀던 LG전자는 금년 상반기에 점유율을 올리며 순위도 1계단 상승

미국/유럽 드럼 세탁기 시장 주요 벤더별 점유율(2011 1H)



(가) 미국 드럼세탁기 시장 Top 6 벤더 점유율 (가) 유럽 드럼세탁기 시장 Top 5 벤더 점유율

자료 : 전자신문('11.8.25.), 재구성. (원소스: GfK, Stevenson Company)

▶ 美 상무부, 한국 가전 3사에 대한 Whirlpool의 덤핑 혐의 제소 기각

○ 금년 3월 30일, 미국 Whirlpool사는 하단냉동고형(프렌치 도어) 냉장고의 덤핑 판매를 이유로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삼성전자, LG전자 등을 제소

- Whirlpool은 한국산 하단냉동고형 냉장고에 대해 34.16~61.82%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요구

- 5월에는 ITC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과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한 하단냉동고형 냉장고를 미국 시장에서 덤핑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예비판정

○ 이에 대해 미국 상무부는 최근 국내 가전 3사의 덤핑 판매 혐의가 미약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예비판정

○ 최종 판결은 2012년 3월로 예정돼 있으며, 이변이 없는 한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

3) 수출 동향

▶ 8월 가정용기기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8% 증가한 3.7억 달러로 집계

○ 냉장고(2.0억 달러, 10.3%↑), 세탁기(0.6억 달러, 11.4%↑), 에어컨(0.2억 달러, 48.3%↑) 등 주요 가정용기기 수출 증가율 모두 성장

▶ (지역별) 남미(51.7%↑), 아세안(51.0%↑), 대양주(44.6%↑), 인도(32.0%↑) 등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중국(△12.7%), 동유럽(△12.3%) 등에의 수출은 다소 감소

○ 동월 수출의 57.4%를 차지하고 있는 동시에 전월 수출 하락세를 주도했던 3개 지역(미국, 중동, EU)에 대한 수출이 성장 반전하며(미국 △31.7%→3.5%, 중동 △11%→13.5%, △EU 13.7%→9.5%) 수출 성장 견인

※ 주요 3개 지역 수출 비중 : 미국 29.7%, 중동 16.8%, EU 10.9%

주요 가정용기기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 대비)

구 분	'10.8	9	10	11	12	'11.1	2	3	4	5	6	7	8
가정용기기	3.4 (13.5)	3.5 (△5.8)	4.1 (20.1)	3.7 (25.0)	3.2 (7.4)	4.2 (28.6)	3.4 (0.6)	4.5 (5.4)	4.7 (4.2)	4.5 (6.1)	4.1 (14.5)	3.5 (△7.8)	3.7 (7.8)
냉장고	1.8 (22.0)	1.7 (△6.7)	2.2 (22.0)	2.0 (34.1)	1.6 (12.0)	2.3 (41.9)	1.7 (△1.3)	2.3 (11.2)	2.6 (10.2)	2.6 (10.9)	2.2 (16.3)	1.8 (△10.5)	2.0 (10.3)
세탁기	0.5 (△12.0)	0.5 (△25.0)	0.6 (1.7)	0.6 (△5.9)	0.5 (△20.2)	0.6 (△2.6)	0.6 (△4.2)	0.7 (△8.0)	0.6 (△13.6)	0.5 (△17.0)	0.5 (△2.3)	0.5 (△3.3)	0.6 (11.4)
에어컨	0.1 (5.5)	0.1 (19.2)	0.2 (46.2)	0.2 (107.3)	0.1 (29.8)	0.3 (84.1)	0.4 (32.2)	0.5 (5.0)	0.4 (9.3)	0.4 (27.7)	0.3 (63.1)	0.2 (△11.6)	0.2 (48.3)

7 수출 유망 품목 : PCB

1) 세계 및 국내 시장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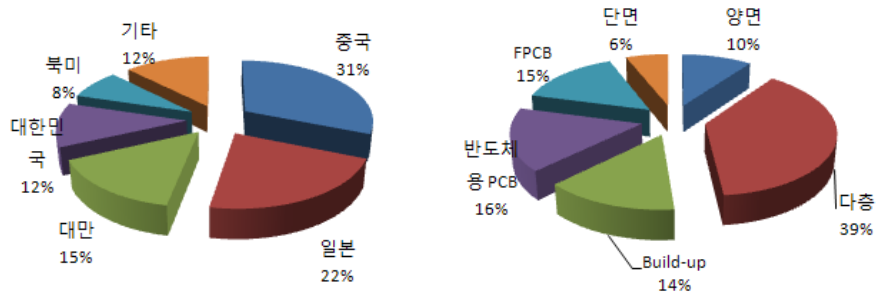
▶ 세계 PCB(Printed Circuit Board, 인쇄회로기판) 시장규모는 '11년 전년 대비 5.3% 증가한 616억 달러 전망

※ 세계 PCB 시장 규모(백만 달러, 한국전자회로산업협회 2011) : '09(55,198)→'10(58,490)→'11(61,618)

○ '10년 이후 IT 경기의 회복과 스마트폰·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의 보급 확대에 힘입어 증가세로 돌아선 PCB 시장은 향후에도 완만한 성장이 예상

※ 세계 PCB 시장 추이(억 엔, 후지키메라 2011.07) : '11(50,804)→'20(64,774)

세계 PCB 시장(2011년)



(가) 국가별 점유율 (나) 기판 종류별 비중

자료 : 한국전자회로산업협회 2011

▶ 세계 PCB 시장은 중국, 일본, 대만, 우리나라 등 아시아 국가가 주도

○ 중국은 세계 IT 공장에 걸맞게 PCB를 사용하는 후방 제조업체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어 내수만으로도 일정 수준의 시장이 확보되며, 부품·소재에 강점을 지닌 일본은 원자재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

○ 기판 종류별로는 시장의 39%를 차지하고 있는 다층과 반도체용 제품(16.3%) 이 주도하고 있으며, FPCB(연성 PCB, 15%)와 빌드업(14%)이 그 뒤를 이음

※ 단면과 양면 기판은 신흥개도국을 중심으로 백색가전용으로 견조한 시장 성장이 예상되고, 다층 경성기판은 TV와 PC의 메인기판용으로 장기적 측면에서 시장 확대가, 빌드업과 FPCB는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용으로 높은 증가가 예상

○ 용도별로는 컴퓨터용과 휴대폰용이 시장의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반도체용 PCB도 15.8%로 성장을 견인

※ 최근 PCB 시장의 흐름으로 ① 기판의 크기를 줄이고 주요 부품을 내장시키는 임베디드 PCB와, 구리 배선 대신 광섬유를 사용하여 전송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光PCB 등 차세대 PCB의 시장 성장, ② 모바일 제품에 적합한 FPCB가 시장을 주도, ③ 납, 수은 등 환경유해물질의 사용을 감소시키는 PCB의 그린화 등을 들 수 있음

▶ '10년 국내 PCB 생산규모는 전년대비 13.2% 증가한 7조 3천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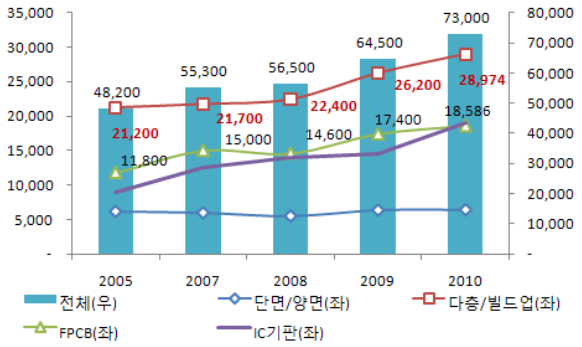
○ '11년에는 스마트 기기 수요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약 11% 늘어난 8조 1천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며, 여기에 해외 수입 분량을 합해 10조원 시장이 형성될 전망 (한국전자회로산업협회)

○ 제품별로는 연성과 경성 PCB가 한 자리수 증가에 머문 반면 반도체용 기판은 20%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 국내 PCB산업이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로 개편

※ '11년 국내 반도체용 PCB 생산규모는 전년대비 21% 가량 늘어난 2조 2,973억 원으로 20%대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국내 PCB 생산 규모

(단위: 억 원)



자료 : 한국전자회로산업협회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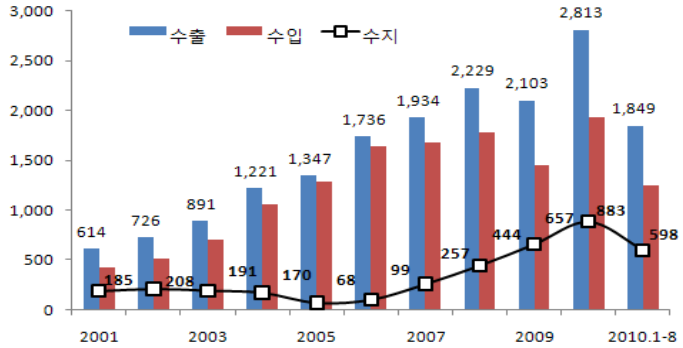
2) 수출입 동향

▶ 우리나라 PCB수출은 '05년 약 13.5억 달러에서 '10년 28.1억 달러로 동 기간 CAGR 15.9%의 고성장을 기록

○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09년 전년대비 5.6% 감소했으나, 다음해 곧바로 33.7%의 높은 증가세를 시현하면서 25억 달러대를 돌파

PCB 수출·입 및 수지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11년 8월 누적 기준으로도 전년동기 대비 약 15.3% 증가한 약 21.3억 달러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어 연말에는 30억 달러대 수출품목으로의 진입이 예상

- 특히, 8월 PCB 수출은 월간 수출기록 사상 처음으로 3억 달러대를 돌파

※ PCB 월간 수출액(억 달러) : '10.01(1.9)→05(2.5)→08(2.4)→11(2.5)→11.01(2.5)→04(2.6)→06(2.7))→07(2.8)→08(3.3)

▶ PCB 수입은 '05년 약 12.8억 달러에서 '10년 19.4억 달러로 꾸준하게 증가

○ '09년 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10년 다시 가파르게 회복하였고, 올 8월에는 월간 사상 처음 2억 달러대를 돌파하는 등 올해에도 수입증가세 지속

※ PCB 수입 증가율(%) : '06(27.9)→'07(2.5)→'08(6.4)→'09(△19.0)→'10(33.5)→'1108(14.7)

▶ PCB는 '05년 약 6,800만 달러 수준까지 흑자폭이 감소했다가 이후 점차 증가하여 '10년에는 약 8.8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

○ '08년 4.4억 달러, '09년 6.6억 달러, '10년 8.8억 달러 흑자 등 IT 대표 효자품목 클럽에 가입한 PCB는 8월 누적기준으로도 약 7억 달러 흑자를 기록

○ 8월에는 IT 흑자액이 감소한 것과는 달리 월간 최초로 1억 달러 흑자시대 개막

○ 엄청난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對日 적자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핵심 부품소재의 경쟁력 확보가 요구되고 있으며, 다만 과거에('06년) 비해 적자액이 상당 수준 감소하는 추세여서 국내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줌

※ PCB 對日 적자(백만 달러) : '06(△456)→'07(415)→'08(△359)→'09(△162)→'10(△248)→'1108(△189.1)

▶ 최대 수출국은 중국이고, 전체 수출에서 약 50% 이상을 차지

○ 중국에 이어 홍콩, 미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이 2~5위를 기록하고 있고, 상위 5위국이 전체 수출에서 약 80%를 차지

○ 수입은 중국, 대만, 일본의 3국에서 PCB 수입의 90% 이상을 차지

PCB 수출 상위 국가

(단위 : 백만 달러, % : 전년 대비)

순위	2011.1~8			2010			2009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1	중국	1,077.4	50.4	중국	1,473.6	52.4	중국	1,048.5	49.9
2	홍콩	213.9	10.0	홍콩	214.0	7.6	말레이시아	182.1	8.7
3	미국	125.9	6.2	말레이시아	204.3	7.3	대만	143.1	6.8
4	대만	120.3	6.1	대만	169.0	6.0	홍콩	133.6	6.4
5	말레이시아	113.2	5.8	미국	162.1	5.8	미국	123.9	5.9
소계		1,647.7	77.4	소계	2,222.9	79.0	소계	1,631.1	77.6
합계		2,132.0		합계	2,812.9		합계	2,10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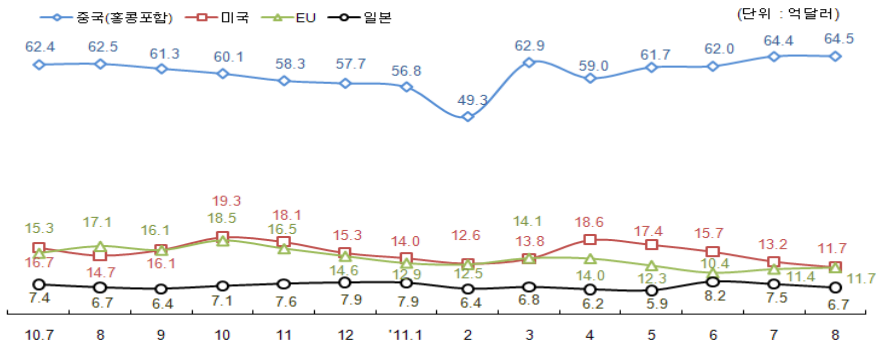
PCB 수입 상위 국가

(단위 : 백만 달러, % : 전년 대비)

순위	2011.1~8			2010			2009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1	중국	610.1	42.5	중국	839.3	43.5	중국	691.2	47.8
2	대만	436.2	30.4	대만	570.0	29.5	대만	397.0	27.5
3	일본	276.3	19.3	일본	376.9	19.5	일본	254.2	17.6
4	필리핀	26.8	1.9	태국	34.2	1.8	태국	32.1	2.2
5	태국	23.5	1.6	필리핀	31.5	1.6	홍콩	26.2	1.8
소계		1,373.0	95.7	소계	1,851.9	95.9	소계	1,400.7	96.9
합계		1,434.6		합계	1,930.3		합계	1,446.0	

2. 주요 국가별 수출 동향

주요 국가별 수출 추이



□1 중국(홍콩포함) : 64.5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3.1% 증가

▶ 휴대폰(7.2억 달러, 59.2%↑)은 완제품(0.2억 달러, 18.6%↑)과 부분품(7.0억 달러, 60.8%↑)이 동반 증가하면서 중국 수출 증가를 견인

○ 반면, 중국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디스플레이 패널(18.9억 달러, △1.9%), 반도체(22.2억 달러, △13.8%) 등은 최근 단가 하락세를 반영하여 감소세

○ 對중국 IT수출은 26개월 연속 증가하며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하였고, IT산업의 중국 수출 비중은 사상 최대인 49.4%에 이름

중국(홍콩포함)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 분		'10.8	9	10	11	12	'11.1	2	3	4	5	6	7	8
금액		62.5	61.3	60.1	58.3	57.7	56.8	49.3	62.9	59.0	61.7	62.0	64.4	64.5
(증감률)		(33.8)	(19.5)	(16.9)	(15.9)	(12.0)	(8.5)	(5.5)	(9.3)	(3.5)	(5.5)	(5.1)	(3.3)	(3.1)
	중국	49.2	47.2	47.4	45.6	44.0	43.1	38.3	47.4	44.3	47.4	48.1	50.3	49.0
		(34.7)	(16.9)	(19.1)	(17.0)	(6.6)	(2.4)	(4.9)	(3.5)	(△2.2)	(3.2)	(4.9)	(3.8)	(△0.4)
	홍콩	13.4	14.1	12.7	12.8	13.7	13.7	11.0	15.5	14.7	14.3	13.9	14.1	15.5
		(30.6)	(28.8)	(9.4)	(12.1)	(33.6)	(33.1)	(7.9)	(31.9)	(25.5)	(13.9)	(5.7)	(1.6)	(16.1)

2 미국 : 11.7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20.4% 감소

▶ 최신 전략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있어 휴대폰 수출(4.7억 달러, △26.4%)이 감소함에 따라 미국 수출은 3개월 연속 감소세

○ 또한, 반도체(1.8억 달러, △47.8%), 패널(0.2억 달러, △64.6%)등 전자부품 수출도 부진

미국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 분	'10.8	9	10	11	12	'11.1	2	3	4	5	6	7	8
금액	14.7	16.1	19.3	18.1	15.3	14.0	12.6	13.8	18.6	17.4	15.7	13.2	11.7
(증감률)	(12.9)	(21.2)	(42.2)	(33.0)	(24.2)	(15.6)	(△4.3)	(△3.3)	(26.0)	(17.3)	(△0.1)	(△21.1)	(△20.4)

3 EU : 11.7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31.3% 감소

▶ 최대 수출 품목인 휴대폰(1.8억 달러, △30.3%)을 비롯해, 반도체(2.1억 달러, △39.1%), 패널(3.1억 달러, △52.1%), TV부분품(1.3억 달러, △27.8%)등의 부진으로 10개월 연속 감소세

EU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 분	'10.8	9	10	11	12	'11.1	2	3	4	5	6	7	8
금액	17.1	16.1	18.5	16.5	14.6	12.9	12.5	14.1	14.0	12.3	10.4	11.4	11.7
(증감률)	(30.2)	(3.8)	(3.2)	(△2.7)	(△3.1)	(△2.3)	(△8.9)	(△9.6)	(△9.5)	(△23.2)	(△34.7)	(△25.8)	(△31.3)

4 일본 : 6.7억 달러 수출, 전년 동월대비 0.8% 감소

▶ 스마트폰 중심의 휴대폰(1.3억 달러, 153.3%↑) 수출이 對일본 IT수출을 주도

○ 반면, 반도체(2.8억 달러, △16.7%), 패널(0.3억 달러, △72.5%) 등의 부진으로 감소세 전환

일본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 분	'10.8	9	10	11	12	'11.1	2	3	4	5	6	7	8
금액	6.7	6.4	7.1	7.6	7.9	7.9	6.4	6.8	6.2	5.9	8.2	7.5	6.7
(증감률)	(12.4)	(△5.0)	(10.6)	(19.0)	(32.5)	(53.1)	(22.2)	(10.8)	(7.0)	(△5.1)	(19.8)	(1.2)	(△0.8)

5 기타 국가

▶ 신흥 국가 중 동유럽(6.8억 달러, △40.1%)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수출이 증가

○ ASEAN(13.6억 달러, 19.1%↑), 중남미(7.0억 달러, 5.5%↑), 중동(3.3억 달러, 17.2%↑) 등 신흥시장 수출은 증가세 지속

3. 수입 및 수지 동향

▶ 8월 IT수입은 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네트워크 장비 수입 증가로 전년 동월대비 11.2% 증가한 71.0억 달러를 기록

○ 최대 IT수입 품목인 전자부품(40.7억 달러, 6.0%↑)은 증가세 전환

○ 컴퓨터 및 주변기기(8.0억 달러, 5.4%↑), 휴대폰(3.4억 달러, 15.9%↑)은 증가세가 지속

- 국내 통신망 투자확대로 네트워크장비 수입은 4.0억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134%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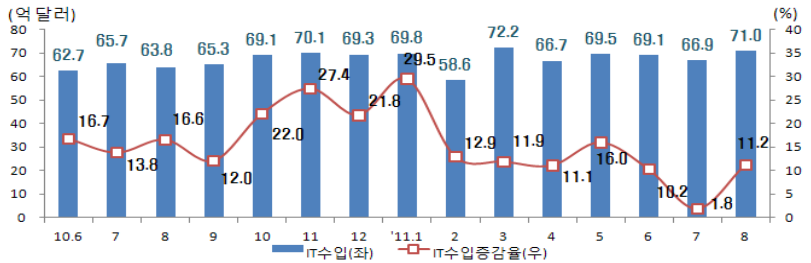
○ 중국(홍콩포함, 25.6억 달러, 14.7%↑), 미국(7.4억 달러, 15.0%↑) 수입은 증가하였고, 일본(10.6억 달러, 0.3%↑), 대만(8.5억 달러, 1.0%↑) 등 수입은 증가세 전환

'11.8월 IT산업 주요 국가/품목 수입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월대비)

구 분	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IT 응용·기반 기기		전체	
전체	40.7	(6.0)	8.0	(5.4)	10.3	(14.0)	71.0	(11.2)
중국(홍콩포함)	11.8	(△1.5)	5.1	(8.0)	2.3	(12.8)	25.6	(14.7)
일본	7.2	(△0.1)	0.4	(6.0)	2.2	(0.8)	10.6	(0.3)
미국	4.5	(36.7)	0.5	(△22.9)	2.0	(4.5)	7.4	(15.0)
대만	6.9	(△0.9)	0.1	(11.4)	0.1	(63.5)	8.5	(1.0)

최근 IT 수입 추이



▶ IT 무역수지는 59.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체 산업 흑자 창출에 크게 기여

IT 무역 수지

(단위 : 억 달러)

구 분	'10.8	9	10	11	12	'11.1	2	3	4	5	6	7	8
전체	12.1	44.1	63.4	25.9	40.9	26.2	21.4	25.6	43.9	21.2	18.7	63.2	8.2
IT산업	70.1	69.2	71.8	65.9	61.1	58.5	53.0	62.6	66.2	64.1	63.2	64.3	59.7

○ **(품목별)** 휴대폰(17.3억 달러), 반도체(12.7억 달러), 패널(19.4억 달러) 및 TV(7.6억 달러) 등 흑자 기조를 유지

주요 품목별 무역 수지

(단위 : 억 달러)

구 분	'10.8	9	10	11	12	'11.1	2	3	4	5	6	7	8
휴대폰	15.9	16.7	21.7	21.6	17.8	17.9	15.5	15.7	19.1	19.7	17.8	18.9	17.3
반도체	20.8	20.6	16.5	13.5	14.7	12.3	12.3	17.0	15.5	14.3	16.5	12.2	12.7
패 널	26.2	22.8	23.0	21.4	21.0	20.2	17.9	21.5	20.8	21.4	20.1	19.6	19.4
TV	6.8	6.4	6.1	5.5	5.1	6.1	5.8	6.9	6.1	5.9	6.2	8.4	7.6

○ **(국가별)** 최대 흑자국인 중국(홍콩포함)은 38.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EU는 7.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반면, 일본은 4.0억 달러 적자를 기록

주요 국가별 무역 수지

(단위 : 억 달러)

구 분	'10.8	9	10	11	12	'11.1	2	3	4	5	6	7	8
중국(홍콩)	40.2	37.0	33.9	31.3	33.3	29.7	27.7	34.6	34.0	35.0	36.1	40.6	38.9
EU	12.8	11.9	13.9	11.6	9.6	8.1	8.2	8.0	8.4	6.8	4.2	6.5	7.0
미국	8.3	9.8	12.5	11.4	7.9	7.8	7.3	7.4	12.4	10.0	9.0	6.0	4.3
일본	△3.9	△4.3	△2.8	△2.5	△2.8	△1.8	△2.6	△3.8	△3.4	△3.6	△2.3	△3.2	△4.0

4. 2011년 8월 IT산업 수출입 통계(잠정)

전체산업/IT산업 연도별·월별 수출입 실적

(단위 : 억 달러, %)

구 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전체산업	IT산업	증감률	전체산업	IT산업	증감률	전체산업	IT산업
2004년	2,538.4	997.1	31.4	2,244.6	542.3	17.6	293.8	454.8
2005년	2,844.2	1,082.5	8.6	2,612.4	592.7	9.3	231.8	489.9
2006년	3,254.6	1,191.1	10.0	3,093.8	646.8	9.1	160.8	544.3
2007년	3,714.9	1,301.0	9.2	3,568.5	697.3	7.8	146.4	603.7
2008년	4,220.1	1,311.6	0.8	4,352.7	735.2	5.4	−132.7	576.4
2009년	3,635.3	1,209.5	−7.8	3,230.8	620.2	−15.6	404.5	589.3
1/4	744.2	233.7	−30.1	714.2	127.1	−33.2	30.0	106.6
2/4	903.6	292.5	−16.2	739.7	153.7	−21.4	163.9	138.8
상반기	1,647.8	526.2	−23.0	1,453.9	280.8	−27.2	193.9	245.4
3/4	947.8	332.9	−6.9	848.5	170.7	−13.3	99.4	162.2
4/4	1,039.7	350.4	29.5	928.5	168.6	10.7	111.2	181.8
하반기	1,987.5	683.3	8.8	1,777.0	339.4	−2.9	210.5	343.9
9월	339.2	118.3	−2.5	297.6	58.3	−13.4	41.7	60.0
10월	339.7	120.3	0.6	304.0	56.7	−10.8	35.7	63.6
11월	339.9	117.2	36.4	295.3	55.0	17.9	44.6	62.2
12월	360.1	112.9	73.3	329.2	56.9	35.0	30.9	55.9
2010년	4,663.8	1,539.4	27.3	4,252.1	756.2	21.9	411.7	783.2
1/4	1,010.8	344.1	47.2	981.6	170.3	34.0	29.3	173.8
2/4	1,202.4	384.0	31.3	1,056.3	182.6	18.8	146.1	201.4
상반기	2,213.2	728.1	38.4	2,037.9	352.9	25.6	175.4	375.2
3/4	1,163.2	403.9	21.3	1,057.0	194.8	14.1	106.2	209.2
4/4	1,287.5	407.4	16.3	1,157.3	208.6	23.7	130.2	198.8
하반기	2,450.6	811.3	18.7	2,214.3	403.3	18.8	236.4	408.0
1월	307.4	110.3	59.5	315.4	53.9	31.2	−8.0	56.4
2월	330.4	106.7	39.0	310.4	51.9	31.8	20.0	54.8
3월	373.1	127.2	44.8	355.8	64.5	38.2	17.3	62.6
4월	393.0	125.9	33.3	355.2	60.0	17.8	37.8	65.9
5월	388.9	127.8	32.5	348.5	59.9	22.0	40.3	67.9
6월	420.5	130.2	28.3	352.5	62.7	16.7	67.9	67.6
7월	404.2	135.5	24.7	354.2	65.7	13.8	50.0	69.9
8월	**364.8**	**133.9**	**26.4**	**352.7**	**63.8**	**16.6**	**12.1**	**70.1**
9월	394.1	134.5	13.7	350.0	65.3	12.0	44.1	69.2
10월	433.4	141.0	17.2	370.0	69.1	22.0	63.4	71.8
11월	412.6	136.0	16.0	386.7	70.1	27.4	25.9	65.9
12월	441.5	130.4	15.5	400.6	69.3	21.8	40.9	61.1
2011년	3,707.2	1,035.1	3.8	3,478.8	543.6	12.7	228.4	491.6
1/4	1,310.0	374.7	8.9	1,236.7	200.6	17.8	73.3	174.1
2/4	1,427.4	398.7	3.8	1,343.6	205.2	12.4	83.8	193.5
상반기	2,737.4	773.4	6.2	2,580.3	405.8	15.0	157.1	367.6
1월	444.8	128.2	16.3	418.5	69.8	29.5	26.2	58.5
2월	384.8	111.6	4.7	363.3	58.6	12.9	21.4	53.0
3월	480.5	134.8	6.0	454.9	72.2	11.9	25.6	62.6
4월	485.5	132.9	5.5	441.6	66.7	11.1	43.9	66.2
5월	474.3	133.5	4.5	453.1	69.5	16.0	21.2	64.1
6월	467.6	132.3	1.6	449.0	69.1	10.2	18.7	63.2
7월	506.0	131.1	−3.2	442.8	66.9	1.8	63.2	64.3
8월	**463.8**	**130.6**	**−2.4**	**455.6**	**71.0**	**11.2**	**8.2**	**59.7**

주요 IT 품목별 수출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0년			2011년				
				8월 당월		1~8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IT 전체	153,941	27.3	100.0	13,064	−2.4	103,514	3.8	100.0
정보통신기기	138,756	26.4	90.1	11,490	−5.4	91,018	1.1	87.9
○전자부품	91,302	45.6	59.3	7,311	−14.0	58,340	−2.9	56.4
− 반도체	50,707	63.4	32.9	4,110	−13.4	32,899	−0.3	31.8
· 메모리반도체	28,470	79.4	18.5	1,746	−37.4	16,518	−13.9	16.0
− 평판디스플레이	33,772	27.3	21.9	2,516	−21.2	20,522	−9.4	19.8
− 전자관	279	−11.4	0.2	17	−6.1	146	−29.9	0.1
− 수동부품	1,599	39.0	1.0	137	−4.1	1,086	1.5	1.0
− 접속부품	4,201.5	32.6	2.7	448	28.0	3,097	12.2	3.0
− 기타전자부품	79	27.2	0.1	10	43.3	70	33.7	0.1
○컴퓨터 및 주변기기	7,708	10.4	5.0	719	35.8	4,864	−1.8	4.7
− 컴퓨터	1,009	114.5	0.7	202	513.3	775	96.9	0.7
− 주변기기	5,418	2.9	3.5	425	5.2	3,265	−12.2	3.2
· HDD	1,405	2.9	0.9	29	−74.8	417	−57.9	0.4
· 프린터	1,142	20.2	0.7	95	11.4	821	10.0	0.8
· 모니터	2,307	−7.9	1.5	181	12.9	1,260	−22.5	1.2
−컴퓨터부품	1,091	1.8	0.7	75	−7.9	696	−4.6	0.7
−SW 및 콘텐츠	191	10.4	0.1	16	53.3	128	11.8	0.1
○통신 및 방송기기	27,773	−10.3	18.0	2,306	11.1	19,438	14.4	18.8
− 통신기기	27,526	−10.8	17.9	2,289	11.1	19,283	14.4	18.6
· 유선통신기기	1,328	26.2	0.9	89	−7.6	706	−7.8	0.7
· 무선통신기기	26,198	−12.1	17.0	2,200	12.0	18,577	15.5	17.9
휴대폰(부분품 포함)	24,888	−13.2	16.2	2,069	10.2	17,741	16.7	17.1
− 방송국용 기기*	247	111.1	0.2	16	12.4	155	16.4	0.1
○영상 및 음향기기	10,486	30.4	6.8	999	7.7	7,318	3.9	7.1
− 영상기기	8,025	39.9	5.2	809	9.5	5,778	6.2	5.6
·TV	7,452	42.6	4.8	770	10.2	5,443	6.9	5.3
LCD TV	649	15.6	0.4	87	59.3	565	32.4	0.5
TV 부분품	6,460	49.4	4.2	650	5.8	4,641	4.8	4.5
− 음향기기	1,082	7.7	0.7	93	7.0	749	2.9	0.7
− 기타 영상음향기기	1,379	6.2	0.9	96	−4.6	790	−9.9	0.8
· 셋탑박스	762	12.2	0.5	42	−26.8	360	−26.1	0.3
○광자기매체	1,487	34.8	1.0	156	38.5	1,059	17.1	1.0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5,185	36.3	9.9	1,573	27.1	12,496	28.1	12.1
○의료정밀광학기기	3,946	51.6	2.6	349	3.4	3,296	35.4	3.2
○가정용 기기	4,510	21.2	2.9	371	7.8	3,266	7.0	3.2
· 냉장고	2,318	29.9	1.5	196	10.3	1,735	10.5	1.7
· 세탁기	685	5.8	0.4	55	11.4	443	−5.5	0.4
· 에어컨	286	11.9	0.2	16	48.3	279	24.9	0.3
· 전자레인지	106	−6.8	0.1	5	−25.6	58	−22.5	0.1
○사무용 기기 및 장비	445	26.9	0.3	33	0.1	318	13.7	0.3
○전기 장비	6,284	40.7	4.1	820	56.7	5,616	40.8	5.4
− 일차전지 및 축전지	4,084	28.3	2.7	423	30.2	3,230	21.4	3.1

* 수상기, 폐쇄회로TV 등 기타 방송국용기기도 일부 포함

주요 IT 품목별 수입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0년			2011년				
				8월 당월		1~8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IT 전체	75,619	21.9	100.0	7,097	11.2	54,358	12.7	100.0
정보통신기기	65,144	21.4	86.1	6,064	10.8	46,575	12.1	85.7
○전자부품	44,363	18.8	58.7	4,068	6.0	30,851	8.1	56.8
- 반도체	31,137	17.0	41.2	2,843	6.5	21,629	8.4	39.8
· 메모리반도체	6,048	46.2	8.0	612	6.1	4,679	32.4	8.6
- 평판디스플레이	6,496	21.7	8.6	576	0.2	4,426	5.8	8.1
- 전자관	118	-24.4	0.2	6	-40.7	55	-35.1	0.1
- 수동부품	1,707	28.3	2.3	149	-6.2	1,190	5.0	2.2
- 접속부품	3,685	26.0	4.9	374	15.8	2,638	9.0	4.9
- 기타전자부품	132	52.1	0.2	33	193.7	158	87.8	0.3
○컴퓨터 및 주변기기	9,347	29.5	12.4	796	5.4	6,414	7.1	11.8
- 컴퓨터	3,078	57.4	4.1	285	26.9	2,279	18.6	4.2
- 주변기기	3,429	19.8	4.5	302	8.2	2,456	11.0	4.5
· HDD	770	19.9	1.0	68	18.5	533	4.2	1.0
· 프린터	1,066	23.8	1.4	95	15.2	820	20.3	1.5
· 모니터	1,002	17.2	1.3	78	-8.8	627	-3.0	1.2
-컴퓨터부품	2,248	22.4	3.0	156	-23.7	1,286	-13.1	2.4
-SW 및 콘텐츠	592	5.5	0.8	53	12.9	392	5.7	0.7
○통신 및 방송기기	6,892	25.2	9.1	828	57.7	6,368	57.3	11.7
- 통신기기	6,756	25.0	8.9	818	59.8	6,291	58.7	11.6
· 유선통신기기	1,504	7.4	2.0	272	85.8	1,744	85.5	3.2
· 무선통신기기	5,252	31.2	6.9	546	49.4	4,548	50.3	8.4
휴대폰(부분품 포함)	4,279	37.2	5.7	336	15.9	3,543	49.2	6.5
- 방송국용 기기*	136	33.5	0.2	10	-24.6	77	-9.2	0.1
○영상 및 음향기기	2,890	11.4	3.8	237	6.8	1,872	-4.5	3.4
- 영상기기	940	9.1	1.2	80	10.5	595	-5.6	1.1
·TV	198	1.8	0.3	14	-1.6	133	-4.8	0.2
LCD TV	17	27.8	0.0	3	35.4	42	265.8	0.1
TV 부분품	152	1.8	0.2	11	17.0	88	-19.5	0.2
- 음향기기	1,368	8.7	1.8	122	9.2	937	2.6	1.7
- 기타 영상음향기기	581	23.1	0.8	35	-7.2	340	-18.3	0.6
· 셋탑박스	108	298.8	0.1	10	28.4	90	19.7	0.2
○광자기매체	1,652	67.9	2.2	135	1.1	1,070	6.7	2.0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0,476	25.0	13.9	1,032	14.0	7,783	16.2	14.3
○의료정밀광학기기	7,101	31.5	9.4	689	10.7	5,239	16.0	9.6
○가정용 기기	899	19.6	1.2	95	23.2	769	32.8	1.4
· 냉장고	83	19.5	0.1	12	10.7	57	2.7	0.1
· 세탁기	71	32.7	0.1	5	-21.6	39	-21.0	0.1
· 에어컨	32	14.2	0.0	10	270.3	81	230.5	0.1
· 전자레인지	17	110.6	0.0	2	146.2	18	74.4	0.0
○사무용 기기 및 장비	136	-20.7	0.2	8	-21.4	67	-31.3	0.1
○전기 장비	2,339	13.8	3.1	241	22.3	1,708	13.4	3.1
- 일차전지 및 축전지	1,166	12.5	1.5	121	14.7	880	20.3	1.6

* 수상기, 폐쇄회로TV 등 기타 방송국용기기도 일부 포함

주요 IT 품목별 무역수지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0년			2011년			
				8월 당월			8월 누적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지
IT 전체	153,941	75,619	78,322	13,064	7,097	5,967	49,156
정보통신기기	138,756	65,144	73,612	11,490	6,064	5,426	44,443
○전자부품	91,302	44,363	46,939	7,311	4,068	3,243	27,489
- 반도체	50,707	31,137	19,570	4,110	2,843	1,268	11,270
· 메모리반도체	28,470	6,048	22,422	1,746	612	1,135	11,839
- 평판디스플레이	33,772	6,496	27,276	2,516	576	1,940	16,095
- 전자관	279	118	161	17	6	11	91
- 수동부품	1,599	1,707	-108	137	149	-12	-104
- 접속부품	4,202	3,685	517	448	374	74	459
- 기타전자부품	79	132	-53	10	33	-23	-88
○컴퓨터 및 주변기기	7,708	9,347	-1,639	719	796	-77	-1,550
- 컴퓨터	1,009	3,078	-2,069	202	285	-83	-1,504
- 주변기기	5,418	3,429	1,989	425	302	123	809
· HDD	1,405	770	635	29	68	-39	-116
· 프린터	1,142	1,066	76	95	95	0	1
· 모니터	2,307	1,002	1,304	181	78	103	632
- 컴퓨터부품	1,091	2,248	-1,157	75	156	-81	-591
-SW 및 콘텐츠	191	592	-401	16	53	-37	-264
○통신 및 방송기기	27,773	6,892	20,881	2,306	828	1,478	13,070
- 통신기기	27,526	6,756	20,769	2,289	818	1,471	12,992
· 유선통신기기	1,328	1,504	-176	89	272	-183	-1,038
· 무선통신기기	26,198	5,252	20,945	2,200	546	1,654	14,029
휴대폰(부분품 포함)	24,888	4,279	20,610	2,069	336	1,734	14,198
- 방송국용 기기*	247	136	111	16	10	6	78
○영상 및 음향기기	10,486	2,890	7,596	999	237	762	5,445
- 영상기기	8,025	940	7,085	809	80	730	5,184
·TV	7,452	198	7,254	770	14	756	5,310
LCD TV	649	17	631	87	3	84	523
TV 부분품	6,460	152	6,308	650	11	639	4,554
- 음향기기	1,082	1,368	-286	93	122	-29	-189
- 기타 영상음향기기	1,379	581	798	96	35	61	450
· 셋탑박스	762	108	654	42	10	32	270
○광자기매체	1,487	1,652	-165	156	135	21	-11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5,185	10,476	4,710	1,573	1,032	541	4,713
○의료정밀광학기기	3,946	7,101	-3,155	349	689	-340	-1,943
○가정용 기기	4,510	899	3,611	371	95	276	2,497
· 냉장고	2,318	83	2,235	196	12	185	1,678
· 세탁기	685	71	614	55	5	50	404
· 에어컨	286	32	254	16	10	6	198
· 전자레인지	106	17	89	5	2	3	41
○사무용 기기 및 장비	445	136	309	33	8	25	251
○전기 장비	6,284	2,339	3,945	820	241	580	3,907
- 일차전지 및 축전지	4,084	1,166	2,917	423	121	302	2,351

주요 지역별 IT 수출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	2010년			2011년				
				8월 당월		1~8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전세계	153,941	27.3	100.0	13,064	-2.4	103,514	3.8	100.0
○ 아시아	99,239	35.2	64.5	9,258	5.0	69,517	7.6	67.2
- 중 국	54,319	38.1	35.3	4,895	-0.4	36,777	2.4	35.5
- 홍 콩	15,010	39.0	9.8	1,553	16.1	11,268	16.3	10.9
- 일 본	7,851	18.7	5.1	665	-0.8	5,551	12.2	5.4
- ASEAN	13,809	29.4	9.0	1,364	19.1	9,652	9.5	9.3
· 싱가폴	5,643	20.2	3.7	480	3.0	3,766	4.2	3.6
· 인 니	952	8.6	0.6	79	1.1	600	-9.5	0.6
· 말 련	2,415	23.1	1.6	184	-7.9	1,410	-13.7	1.4
· 태 국	1,136	14.5	0.7	95	9.4	819	8.4	0.8
- 대 만	6,420	45.7	4.2	582	-0.7	4,889	18.9	4.7
- 인 도	1,537	16.4	1.0	159	17.2	1,140	17.7	1.1
○ 북미	19,588	16.8	12.7	1,256	-20.1	12,439	1.3	12.0
- 미 국	18,508	15.9	12.0	1,170	-20.4	11,695	0.6	11.3
- 캐나다	879	39.3	0.6	67	-24.0	618	21.0	0.6
○ 유럽	21,132	12.6	13.7	1,371	-28.3	11,429	-16.1	11.0
- EU	18,787	10.3	12.2	1,173	-31.3	9,922	-18.8	9.6
· 영 국	1,496	-13.0	1.0	83	-23.8	773	-16.6	0.7
· 독 일	3,302	13.5	2.1	200	-15.8	1,726	-21.4	1.7
· 프랑스	931	-23.9	0.6	50	-28.1	509	0.0	0.5
· 이탈리아	755	28.7	0.5	23	-48.3	433	7.2	0.4
- 러시아	1,535	43.2	1.0	114	-20.3	859	-5.5	0.8
○ 중동	3,876	28.6	2.5	333	17.2	3,075	27.3	3.0
- 사우디	429	6.7	0.3	45	45.0	447	63.4	0.4
- UAE	1,269	45.4	0.8	112	16.4	1,019	41.3	1.0
○ 중남미	8,420	13.3	5.5	705	5.5	5,893	1.1	5.7
- 브라질	2,429	21.0	1.6	249	30.9	2,038	17.4	2.0
- 멕시코	5,188	5.9	3.4	362	-14.7	3,183	-10.0	3.1
- 칠 레	195	5.1	0.1	18	70.7	157	15.1	0.2
○ 대양주	1,020	2.8	0.7	83	5.9	711	18.4	0.7
- 호 주	944	4.2	0.6	73	-0.3	641	15.6	0.6
○ 아프리카	635	11.6	0.4	58	-1.7	436	6.7	0.4
○ 브 릭 스	59,821	36.8	38.9	5,418	0.6	40,814	3.3	39.4

주요 지역별 IT 수입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	2010년			2011년				
				8월 당월		1~8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전세계	75,619	21.9	100.0	7,097	11.2	54,358	12.7	100.0
○ 아시아	60,819	23.7	80.4	5,726	11.4	43,659	12.8	80.3
- 중 국	26,311	32.4	34.8	2,497	15.9	19,647	19.1	36.1
- 홍 콩	950	32.9	1.3	65	-18.8	751	29.8	1.4
- 일 본	11,952	15.7	15.8	1,063	0.3	8,021	2.5	14.8
- ASEAN	11,858	4.3	15.7	970	-3.0	8,162	6.4	15.0
· 싱가폴	5,255	-11.1	6.9	420	-0.0	3,626	10.0	6.7
· 인 니	415	40.5	0.5	40	10.2	313	13.8	0.6
· 말 련	2,689	18.8	3.6	234	-3.6	1,870	4.8	3.4
· 태 국	1,556	19.8	2.1	129	2.4	1,109	9.0	2.0
- 대 만	9,698	41.7	12.8	852	1.0	6,762	11.0	12.4
- 인 도	43	14.4	0.1	4	13.7	31	11.9	0.1
○ 북미	8,068	17.7	10.7	770	12.9	5,510	6.0	10.1
- 미 국	7,660	19.1	10.1	741	15.0	5,267	6.8	9.7
- 캐나다	234	4.5	0.3	16	-27.3	136	-8.5	0.3
○ 유럽	5,733	14.0	7.6	519	11.2	4,502	21.7	8.3
- EU	5,134	12.9	6.8	474	11.9	4,195	28.4	7.7
· 영 국	391	10.6	0.5	40	34.8	298	17.4	0.5
· 독 일	2,341	20.8	3.1	222	11.1	1,689	12.7	3.1
· 프랑스	660	-9.8	0.9	56	13.6	456	9.5	0.8
· 이탈리아	260	15.7	0.3	21	-1.8	178	3.5	0.3
- 러시아	89	128.7	0.1	1	-19.6	10	-87.2	0.0
○ 중동	434	-12.4	0.6	23	-44.3	229	-18.3	0.4
- 사우디	1	449.8	0.0	0	-99.1	1	-58.5	0.0
- UAE	4	-37.1	0.0	1	282.5	8	151.0	0.0
○ 중남미	441	21.5	0.6	48	25.4	360	29.9	0.7
- 브라질	16	-6.8	0.0	3	220.4	16	72.6	0.0
- 멕시코	420	22.1	0.6	45	22.1	338	27.0	0.6
- 칠 레	2	236.2	0.0	0	118.7	1	114.6	0.0
○ 대양주	107	16.3	0.1	10	10.4	88	31.3	0.2
- 호 주	95	15.7	0.1	8	1.4	78	29.8	0.1
○ 아프리카	17	58.0	0.0	1	63.1	8	-38.8	0.0
○ 브 릭 스	26,459	32.6	35.0	2,505	15.9	19,703	18.6	36.2

주요 지역별 IT 수지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	2010년			2011년			
				8월 당월			8월 누적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지
전세계	120,949	62,020	58,929	13,064	7,097	5,967	49,156
○ 아시아	73,397	49,174	24,223	9,258	5,726	3,532	25,859
- 중 국	39,344	19,868	19,476	4,895	2,497	2,399	17,130
- 홍 콩	10,802	715	10,087	1,553	65	1,489	10,517
- 일 본	6,617	10,333	-3,716	665	1,063	-398	-2,469
- ASEAN	10,673	11,369	-696	1,364	970	394	1,490
· 싱가폴	4,693	5,912	-1,219	480	420	60	140
· 인 니	876	295	581	79	40	39	287
· 말 련	1,963	2,263	-300	184	234	-50	-460
· 태 국	992	1,299	-306	95	129	-35	-290
- 대 만	4,407	6,845	-2,438	582	852	-270	-1,873
- 인 도	1,320	38	1,283	159	4	156	1,109
○ 북미	16,764	6,855	9,909	1,256	770	486	6,929
- 미 국	15,973	6,433	9,540	1,170	741	429	6,428
- 캐나다	631	224	407	67	16	51	482
○ 유럽	18,759	5,029	13,730	1,371	519	852	6,927
- EU	17,037	4,548	12,489	1,173	474	699	5,727
· 영 국	1,718	353	1,365	83	40	43	475
· 독 일	2,910	1,938	972	200	222	-22	37
· 프랑스	1,224	731	492	50	56	-6	53
· 이탈리아	587	225	362	23	21	2	255
- 러시아	1,071	39	1,033	114	1	113	849
○ 중동	3,013	495	2,518	333	23	310	2,846
- 사우디	402	0	402	45	0	45	446
- UAE	873	7	866	112	1	112	1,010
○ 중남미	7,435	363	7,072	705	48	657	5,534
- 브라질	2,008	17	1,991	249	3	246	2,023
- 멕시코	4,897	344	4,553	362	45	317	2,845
- 칠 레	185	0	185	18	0	18	157
○ 대양주	992	92	900	83	10	73	624
- 호 주	906	83	823	73	8	65	563
○ 아프리카	569	11	558	58	1	57	428
○ 브 릭 스	43,744	19,962	23,782	5,418	2,505	2,913	21,111